

# 성도의 빛 12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벗

1987년 12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배리온 지 롭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팩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즈 엠 패러모어, 데릭 에이 키스버트.

통 권 : 제260권, 제23권, 제12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8712KO

PRINTED IN KOREA 12/87

©198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벗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벗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예수의 탄생, 칼 하인리히

블록 작.

## 목차

41 그 책 속에는 권세가 있음

[간중]

2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 청소년란

3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 그리스도—은사와

44 “너희는 물몬경을 충분히

기대

활용하지 않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안나 스테이러

6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46 윈드 리버의 유산

응하였느니라

제넷 토마스

케이스 메서비

## 성도의 벗 어린이란

12 호레이쇼 툴리오 인시그나리스 :

신권을 영화롭게 함

2 세상이 잠잠히 섰던 밤

마빈 케이 가드너

도로시 레온

16 방문 교육 메시지 :

4 섬의 성탄절 선물

지혜롭고 품위있게

돌리 하일드리스

문제에 대처함

6 전 세계에 즐거운 새해를

18 빛의 수확 : 파리 미술

찰린 에스 술러

선교 사업 및 유타 인상주의

8 그림 색칠하기

25 웨일즈인 댄 존즈 :

고향에 복음을 전함

## 교회 및 지역 소식

로널드 디 매니스

31 으뜸된 선견자

[예언자 요셉]

닐 에이 맥스웰 장로

35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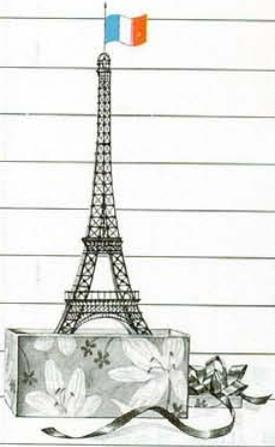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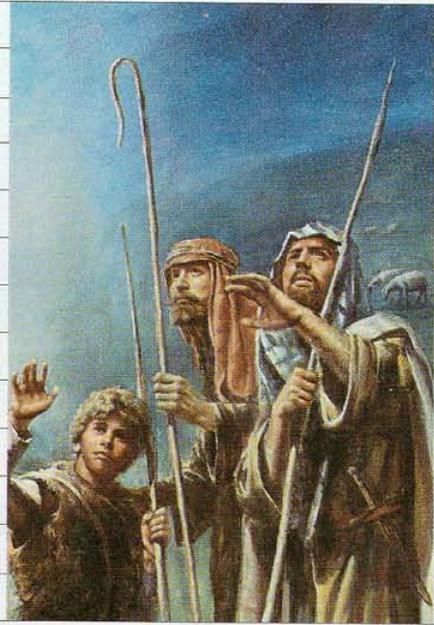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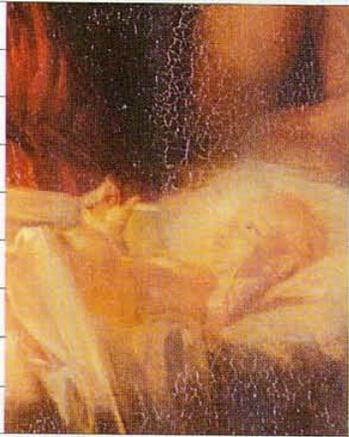
영적인 양식을 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공개 토론]



World History



#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델 판슨 작, 목자들에게 나타남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온 세상의 기독교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영광스러운 절기에 우리는 여러분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바입니다.

성경과 물론경 두 경전에 기록된 대로 약속의 표적이 거룩한 밤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겸허한 목자들이 처음으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0~11, 13~1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요한 사명은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더불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탄절기에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좀더 충만하게 복음을 실천하고 온 세상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부지런히 더욱 더 헌신하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여러분의 형제 □

대관장단

## 대관장단 메시지

# 예수 그리스도 은사와 기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가 서로 주고 받는 절기인 이 성탄 절기에 들어서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 중 몇 가지에 관하여 또 우리가 그 보답으로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가 생활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완전한 귀감이 되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요 15 : 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지상 생활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대속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교성 19 : 15~19 참조)

세상에는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용의는 있으나, 그 신앙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르고 그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위대한 영존자이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삶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과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니삼 27 : 27 참조)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장 가깝게 따르는 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며 축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부나, 권력, 특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성과 축복 및 기쁨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시험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비슷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옳은 길이며 충만한 진리이며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외에 둘째 은사는 그의 교회로, “온 땅 위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 : 30)”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은사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나 승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침례,

신권, 해의 왕국의 결혼 및 기타 제반 중요한 의식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세우고 확장하는 데 쓰시는 조직된 수단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일해야 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재능 및 기타 재산을 기꺼이 관대하게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이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교회는 그 힘이 성장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가 배도로 인하여 지상으로부터 다시 거두어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우리에게 다짐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기뻐하시되 개개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교회 회원 전체를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성 1 : 30)

이 교회는 참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며, 지도자를 지지하고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주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 및 그의 교회라는 은사 이외에 세계 은사는 경전, 특히 몰몬경의 은사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중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몰몬경, 소개 참조)

몰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몰몬경을 요약해서 편집한 몰몬은 시현을 통하여 우리를 보았으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이 책에 포함시키도록 인도하심을 받았습니.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 몰몬경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담겨 있는 역사 및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몰몬경의 교리를 주의깊게 연구한다면,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거짓 원리와 인간의 철학과 싸울 수 있는 잘못을 밝혀 주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교회 및 몰몬경은 이 성탄절뿐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실까요?”  
 죽어 가는 소녀가 물었다. 감독은  
 그녀의 손목을 가만히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네 손을 보여 드리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절기에 주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것과 현재 행하고 계신 것을 모두 생각해 볼 때, 그  
 보답으로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

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사는  
 그의 생명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선물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생명과 희생이 되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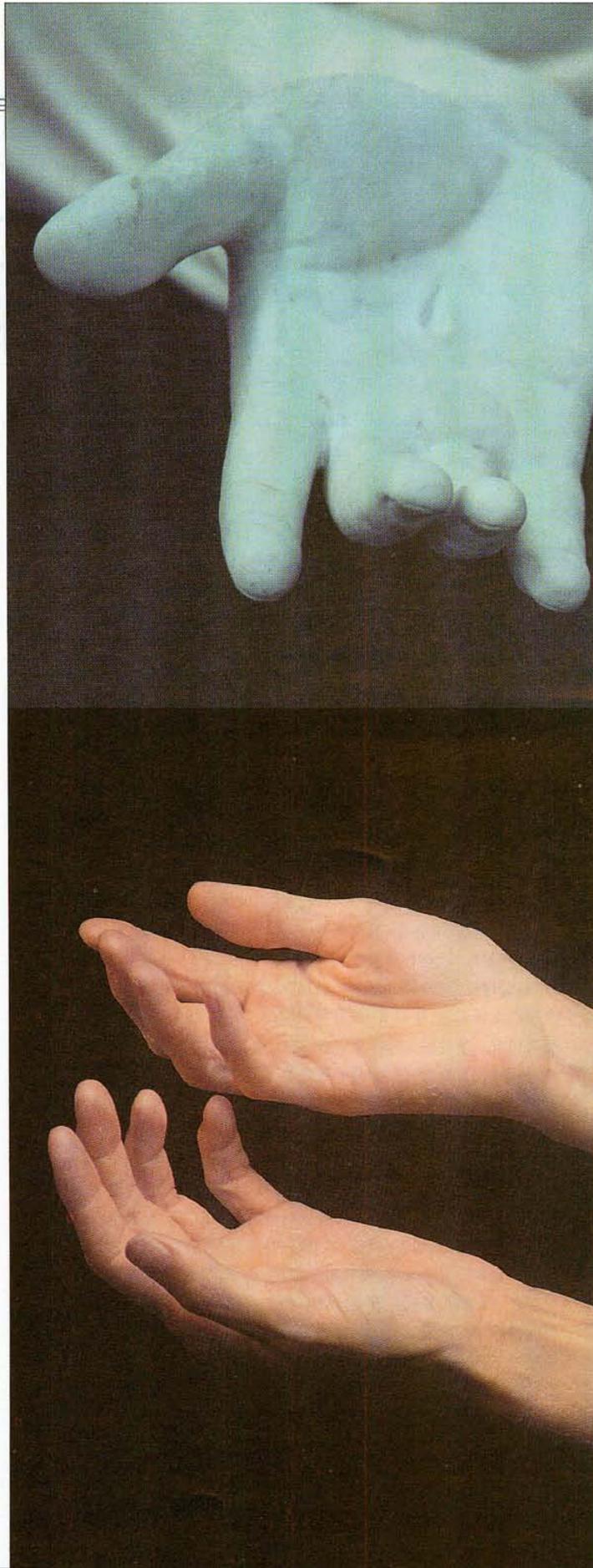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으로부터 창출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쁨을 깊게 하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고, 이해력을 키우시며, 근육을 강하게 하고,  
 영을 고취하고, 그들의 축복을 늘려 주시고 기회를 더 갖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친구를 주시며 평화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참으로 풍성한 삶을 발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답으로 당신께서 갖고 계신  
 것을 모두 그 사람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주님께 빚을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주님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축복이 다소 늦게 오는 듯이 보일지도 모르나, 그것은 필경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축복이 오며 그것도 풍성하게  
 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즐겨 당했으며, 그것은 마치 다 낡아 떨어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새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주려고 찾아 온 사람에 비유된다고 교회 회원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가를  
 생각할 때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낡고 더러운 옷을 버리고 새



웃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48페이지;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6페이지)

성도들은 결코 죄인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 고

아가 된 어린 남동생을 키우며,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신의 세속적인 계획을 모두 희생했던 어린 소녀가 침대에 누워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독을 청하였습니다. 그녀가 임종의 순간에 감독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감독은 거친 일로 거칠고 딱딱하게 못이 박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실까요?” 감독은 그녀의 손목을 가만히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을 보여 드리렴.”

언젠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것처럼 많이 희생하신 그분의 두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은 깨끗하며 주님의 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는 징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순결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그와 같이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성약합니다. 주님은 그 보답으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의 만형과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지상 생활에 대한 기대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형과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지상에서 저 사악한 자의 적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를 두 분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고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낮익은가를 깨닫게 될 때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가 우리 각 사람의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한 가지 일도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 두시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르고 있다 해도 현재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하늘의 친구들은 우리의 승리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순간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우리의 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려고 갖고 계신 것을 모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에 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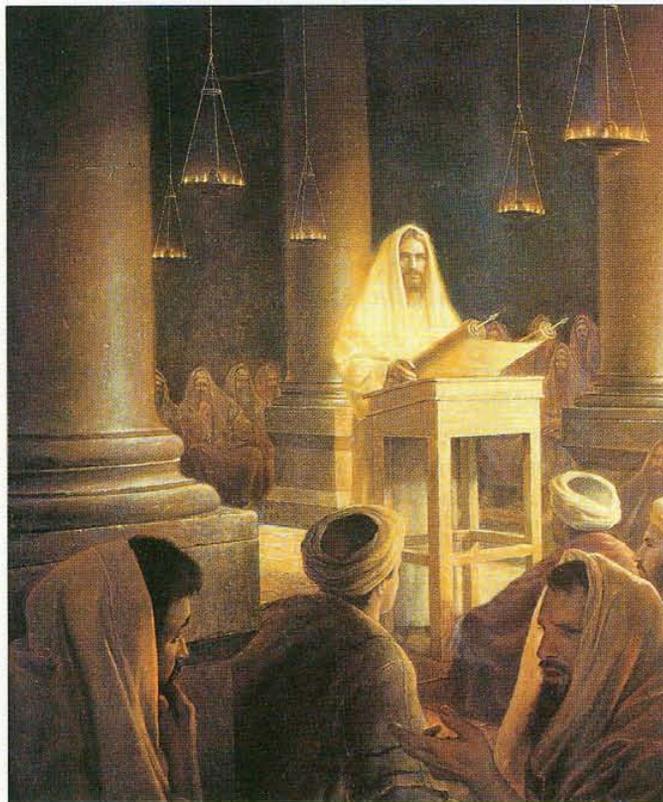
1. 벤슨 대관장은 세상의 표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위대성과 축복과 기쁨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시험 기준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비슷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 우리는 시간, 재능 및 기타 재산을 기쁘게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교회는 그 힘이 성장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창출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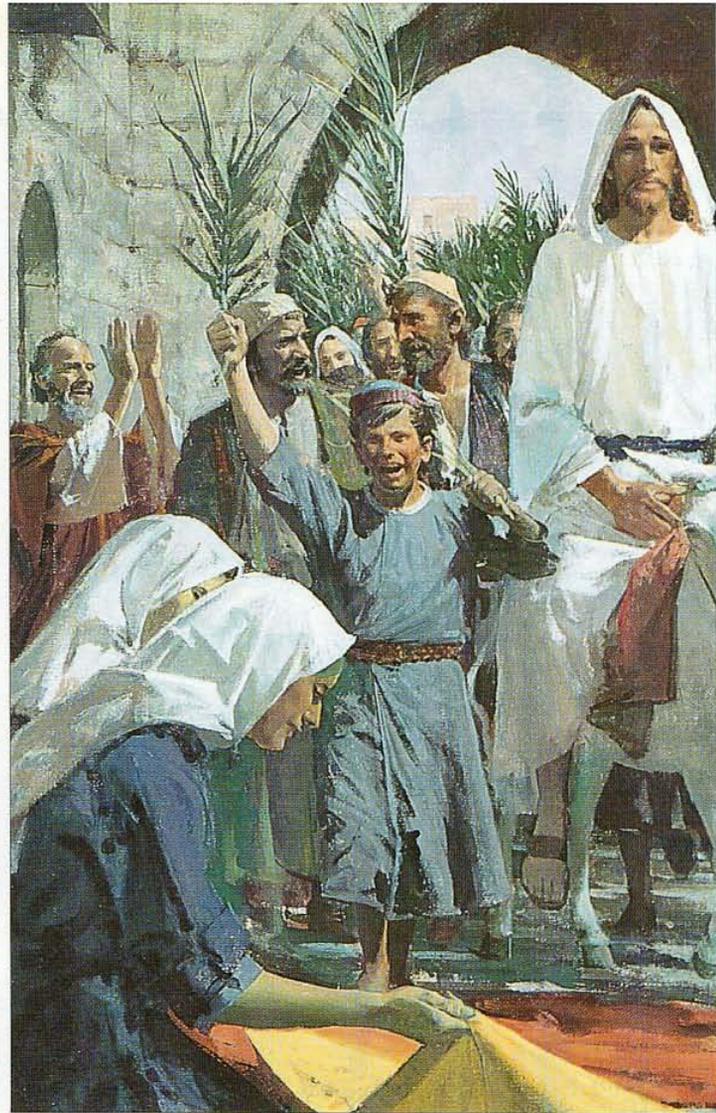
1. 벤슨 대관장은 거짓 원리와 인간의 철학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촉구하시는가?
2.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것과 현재 행하고 계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성탄 절기에 우리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우리의 손은 깨끗하며 그 손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징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



율법을 주신 자



기름부음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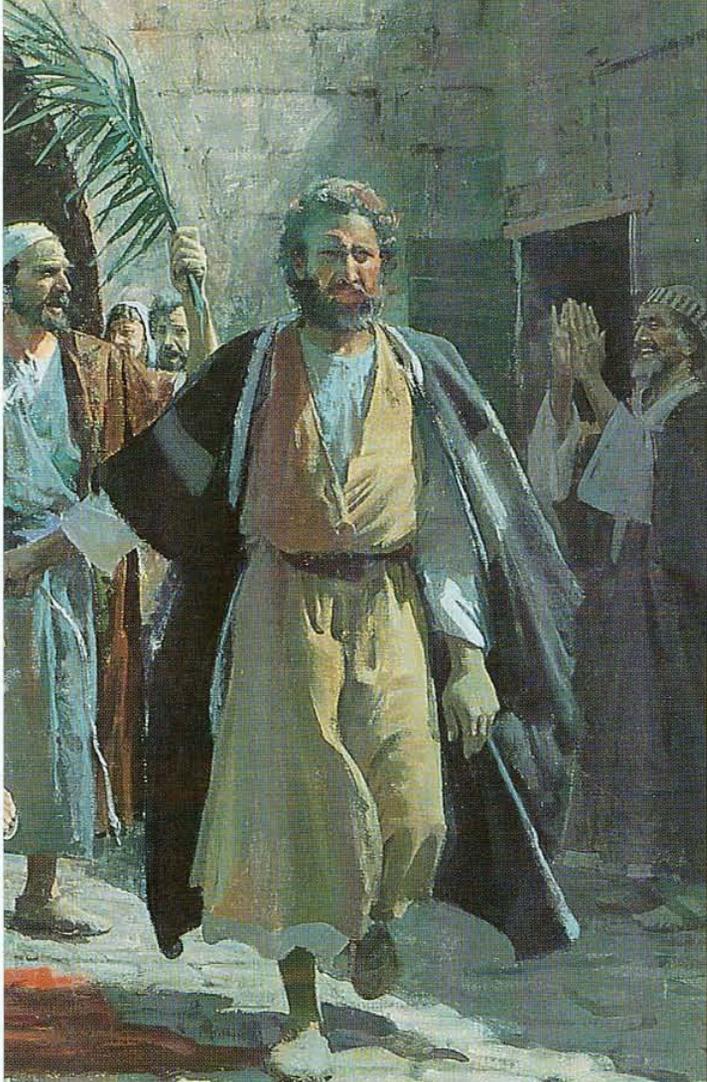
# “이 글이 귀에 응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케이스 메서비

**우**리의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간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선언한 대로이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고전 15:3~4)

[독자들이 히브리어의 개념을 보다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리 앤더슨 작,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하는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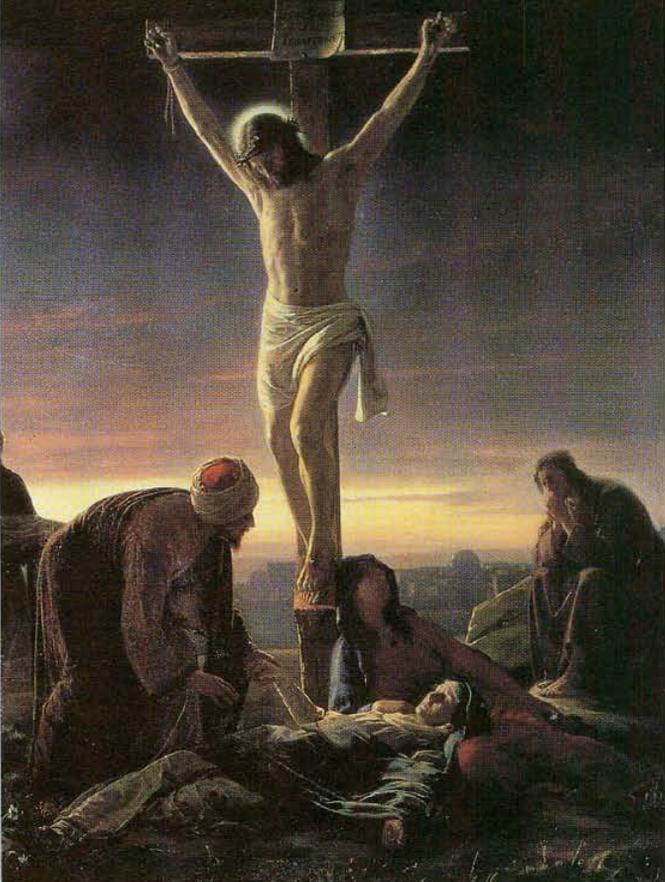
위대한 왕

# 늘날 너희 였느니라”

있게 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하기 위하여 본 기사에서는 희랍어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의  
메시아로 바꾸었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살아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메시아가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  
사도들까지도 메시아의 희생의 역할에 관하여 혼동하고 있었다.  
메시아의 역할에 관하여 예언하고 선포한 것이 너무나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오해하게 되었는가? 백성들이



칼 블록 작, 십자가에 달리심. 덴마크. 프레데릭스브르크성 예배당 원화 소장. 프레데릭스브르크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실림.

## 희생 제물되신 메시아



해리 앤더슨 작, 재림

## 복천년의 메시아

경전을 너무나 몰라서 메시아에 관한 그들의 믿음이 진리 위에서 있지 못했었는가?

### 위대한 왕, 기름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명칭 **메시아**와 같은 뜻의 희랍어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며 이 명칭은 여러 가지 부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명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역을 행하도록 기름부고 성별한 제사장, 왕, 예언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출 29:29, 삼상 10:1, 왕상

19:16 참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즉 예언자, 제사장, 왕을 모두 겸하셨다.

그의 기름부음은 하늘 나라에서 행해졌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과 구속주의 필요성을 예견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자”가 되신 곳은 바로 그곳 하늘이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9페이지) 이런 이유로 요한은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 계시록 13:8, 영문 홈페이지 참조)이라고 확인하는 말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상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육체적, 영적인 죽음을 정복하는 데 있었으나 수많은 예언은 주로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기름부음 받은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에 한 예언은 이렇게 말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유다 족속인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의 상속자로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역사 17:11~14) 그리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이사야는 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7)

이리하여 다윗의 아들이란 명칭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주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시기가 왔을 때, 주님은 솔로몬이 세운 다음과 같은 고대의 철차 혹은 모범을 따름으로써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솔로몬은 기혼의 샘에서 기름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왕의 행차로 노새를 타고 “솔로몬왕 만세”를 외치며 크게 즐거워하는 무리의 환영을 받았다. (왕상 1:38~45) 그 이후의 계승자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름부음 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그가 똑같은 방법으로 오실 때 그들의 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 9:9)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기를 택하셨으로써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예수님 자신이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예언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환희에 넘친 유대인들은 “호산나”-“구원하옵소서”를 뜻하는 말-하고 환영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외쳤다(막 11:7~10; 눅 19:35~38)

왕좌를 상속할 왕가의 상속자가 왕의 도시에 도착하신 것이다. 곧 적들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 순간만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셨으며 그가 왕가의 메시아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 입법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성약과 율법을 세우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한 후 그들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예언자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신명기 18:18~19)

그 예언자는 모세처럼 새 성약을 맺고 새 율법을 주게 되어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권속과 맺을 그 새 성약에

대하여 기록하여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율법이 되리라고 말했다. (렘 31 : 31~33 참조)

모든 이스라엘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선지자였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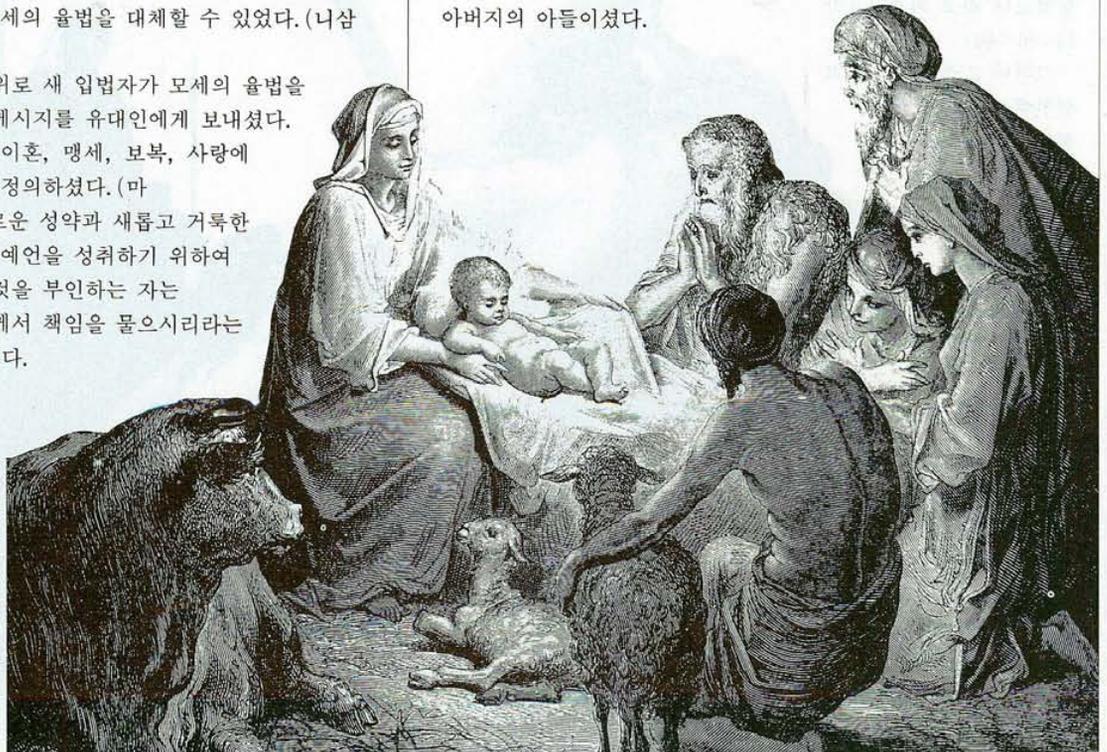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 3 : 22, 26)

모세가 이스라엘에 전한 율법은 만물을 새롭게 하며 아브라함의 날에 알려졌던 그 이전의 복음 율법을 대체했다. (갈 3 : 8, 19; 교성 84 : 19~27)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충만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율법 아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히 7~10장 참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니파이는 새 입법자가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그 때가 되면 그들은 옛 것을 버릴 준비를 해야 했다. “그가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행할 율법이 될 것이라.”(니이 26 : 1)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진 이만 모세의 율법을 대체할 수 있었다. (니삼 15 : 8~9 참조)

예수님은 친히 말과 행위로 새 입법자가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유대인에게 보내셨다. 그는 산상수훈에서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정의하셨다. (마 5 : 27~47 참조) 그의 새로운 성약과 새롭고 거룩한 율법은 모세와 같은 이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며, 누구든지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리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나타내셨다.

구스타프 로테 작 예수강단



###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사야서의 두 성구에서는 거룩한 아기의 탄생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 첫 성구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다. (이사야 7 : 14; 마태복음 1 : 23 참조)

둘째 성구는 미래의 탄생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내다보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 9 : 6)

이사야가 사용한 칭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생을 선포할 뿐 아니라 거룩한 메시아께서 지니실 영광과 명성, 그가 수행할 사업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께서 무력한 아기로 지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천군이 예고한 위대한 자존자(교성 39 : 1), 여호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셨다.

이사야서 61장 1~2절에서 메시아는 몸과 마음 또는 영적으로 무력한 자가 그들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다. 그 예언은 약속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신분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부음을 받으셨음을 이렇게 설명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셨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방법에 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셨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그것이 공식적인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남기지 않기를 원하시게 되었을 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메시아나?”라는 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고 확고하게 대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라고 외쳤다.(막 14:61~64)

그러나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해도 참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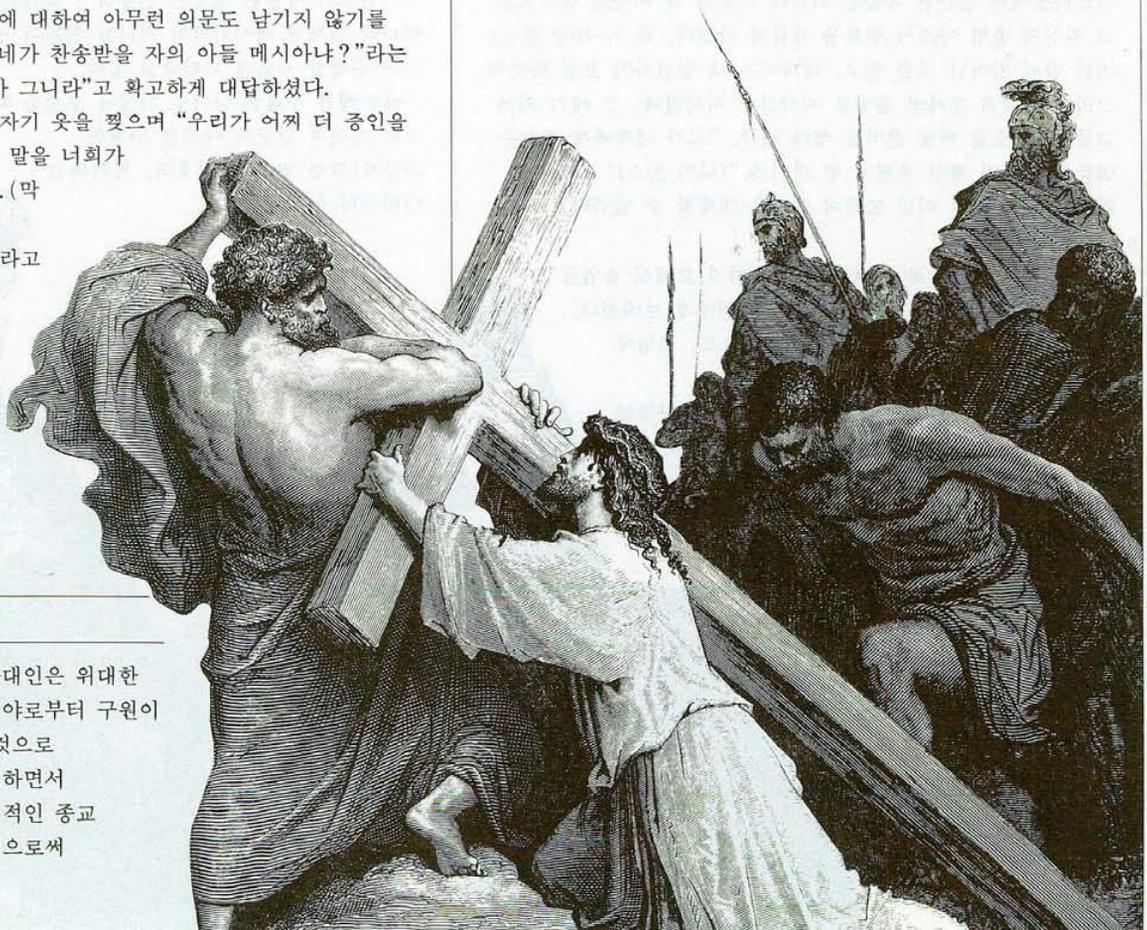
### 희생의 메시아



유대인은 위대한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핵심적인 종교 의식으로써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구원을 메시아의 희생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전 말씀은 메시아의 희생에 관하여 분명했다. 실제로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은 태초부터 가르쳐졌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루시퍼는 때가 되면 정말로 자기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메시아가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아챘다.(창 3:15)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희생 의식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으로서, 그 희생은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구속하고 육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리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배웠다.(모세서 5:7, 9~10) 아담과 이브는 또 독생자의 이름도 알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는  
“예수[메시아]이심을, 인간의 자녀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모세서 6:52)

그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희생 역할 즉 구원의 역할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다. 구약은 희생의 메시아에 관한 성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베나민 왕이 유대인에 관하여 말한 그대로 구세주에  
관한 그러한 언급이 오해를 받는 시대가 왔다. “주의 강림에  
관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와 예표와 그림자를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나 사람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모세의 율법이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모사 3:15)

이사야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의로운  
종을 묘사하는 면에서 으뜸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움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사 53:4~5, 11; 또한 50:5~7;  
52:13~15 참조)

시편 22편의 다음 구절도 또 십자가형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1절,  
마 27:46과 비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16절; 요  
20:25과 비교)

“저희가...내 걸음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18절; 요  
19:23~24과 비교)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메시아의 위대하고 영원한  
희생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었던 부활이 있기까지는 왜 이렇게  
분명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 복천년의 메시아



무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 고대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위대한 부활의 날을 크게 기뻐하며 고대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사

26:19)

욥의 기쁨에 넘친 간증은 고대의 수많은 이스라엘인이 깊이  
확신을 갖고 있었을 진리를 나타내 준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욥, 아브라함, 아담, 에녹, 에스겔 및  
고대의 모든 성도는 약속된 부활을 알고 있었으며 구세주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그들 자신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굴욕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표적은  
부활하신 후에 그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분에게  
남아 있게 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눅 24:39)고  
말씀하셨다.

그 흔적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포위당한 유대인에게 오셔서  
둘로 쪼개어질 감람산에 서실 때 다시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무서워 떨며 그분을 알아보고 “두 손의 상처는  
어쩐이냐”라고 물을 것이며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눅 14:3~4; 13:6)

결국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구세주의 지배 하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승리를 거두고 왕국을 아버지에게 바칠  
것이다. (고전 15:24~26) 그날 그가 마침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요, 메시아 중의 메시아라고 불리울 때 그에 관하여  
미리 알려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

유태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고대 경전 부교수인 케이스 매서비는 교회  
교과 과정 저자이며 사본 유태 이스트 스테이크 플레전트뷰 제삼왕도의 복음  
교리반 교사이다.

# 호레이쇼 툴리오 인시그나리스

마빈 케이 가드너

“**언**젠가는 형제님이 신권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합당합니다.”라고 선교부장이 그에게 말했다.

“선교부장님, 그것은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콜롬비아 부카라망가의 호레이쇼 툴리오 인시그나리스는 흑인 혈통을 타고 난 회원으로서 자기 생애에 그 꿈의 성취를 보리라는 희망은 거의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 년 후 그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교회의 모든 충실하고 합당한 남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성신권을 받을 수 있는 오랜 약속의 날이 왔다”는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인시그나리스 형제는 삼 개월 후 장로가 되었다. 그는 1981년 이후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해 왔으며 아마 그의 혈통으로는 처음으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1968년에 처음 선교사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듣고 혼동되어 더 이상 듣고 싶은 흥미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팔 년 후 그들과 비슷한 두 젊은이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들을 보았을 때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어딘가 천사같은 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날 저녁 자기 집으로 오도록 청했다.

불행히도 그의 아내 도라는 남편처럼 열의를 느끼지 못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아내는 선교사를 만나기를 거절했다.

“나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호레이쇼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다시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영적으로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들어 본 적도 없고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속해서 들었다. “나는 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많은 질문을 했다. 교회 회원이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는 “계명지키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음과 신권에 관한 계시는 이 콜롬비아인의 가족을 크게 변화시켰다.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곧 커피와 술을 끊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 장로들은 그 다음 날 밤과 그 다음에도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달 하순 1976년 8월 26일을 침례일로 정했다. 부인 도라도 경청하기 시작했으나 8월 24일까지도 침례받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기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라고 호레이쇼는 말한다. 도라는 그날 밤 영적인 증거를 받고 교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었다. 이 부부는 이들 후 두 명의 큰 자녀와 함께 침례받았다. 호레이쇼는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한다.

인시그나리스 가족은 곧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 도라는 더 이상 신경과민으로 인한 약물 복용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호레이쇼의 직장 상사도 전과는 달리 그를 보기 시작했다.

호레이쇼가 침례받기 전에 선교사들은 그가 신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신권회를 포함하여 모든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재정 서기로 또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일학교 시간에 피할 수 없는 의문이 그의 생각을 가득 채웠다. 나는 왜 신권을 소유할 수 없는가? 나도 지부의 다른 회원들처럼 합당하지 않았는가? “나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 오는 것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성찬식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온 후 그가 아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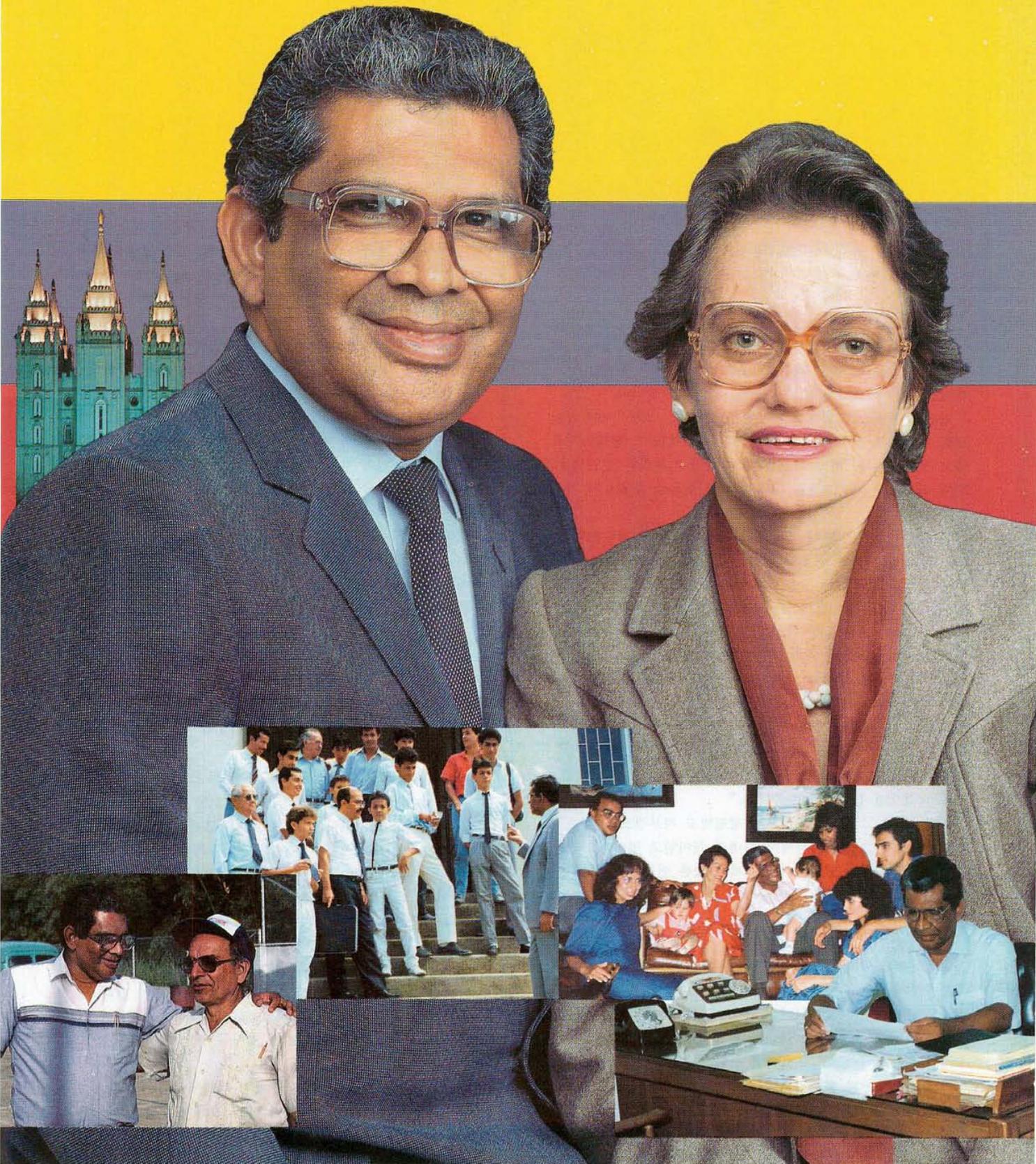
1981년에 인시그나리스 형제와 자매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스토크 솔루션 사진)

1981년 이래로 호레이쇼 인시그나리스는 스테이크 부장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 도라는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일하고 있다.

인시그나리스 부장이 부카라망가에 있는 워드 파티에서 한 친구와 담소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워드 신권 소유자들과의 모임.

인시그나리스 가족 좌로부터 : 아들 휴고, 며느리 세실리아, 손녀 파올라 안드레아(휴고와 세실리아의 딸), 인시그나리스 자매, 인시그나리스 부장, 손자 호레이쇼 안드레스(디오네와 밀론의 아들), 딸 밀라디, 딸 디오네, 사위 밀론, 아들 호레이쇼(선교사로 봉사 중임)와 요르게는 사진에 나와 있지 않다.

# : 신권을 영화롭게 함



#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무언가 내 안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 신권 계시

도라는 도움을 구하고자 예배당까지 다섯 구역을 달려 갔다.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거의 앞을 못보는 장님같이 뛰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해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한편 호레이쇼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힘이 저를 한쪽으로 밀고 있었고 또 다른 힘은 저를 그 반대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아내가 지부장과 선교사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나에게 힘과 도움을 주었으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도라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은 순종심이 많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오후 성찬식에 갔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간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 년 후 신권에 관한 계시가 왔다. 그리고 선교부장이 9월에 호레이쇼와 접견하기 위해 부카라망가까지 왔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그러나 바로 그 날 다시 사탄이 나를 쳤습니다. 그는 내가 접견하러 가서는 안되며 신권을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갔으나 나는 집에 남아서 주님께서 의심과 혼란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을 느꼈으며 접견하러 갔습니다.”

호레이쇼는 그 다음 날 장로로 성임받고 지부장으로 성별받았다. “그날 예배당에서 아내와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젠가 성전에서 결혼하고 아들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사람”

호레이쇼는 이 년 동안 지부장으로 봉사한 후 지방부장으로 부름받았다. “당시 나의 소망은 부카라망가에서 스테이크가 조직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 년 후인 1981년 11월 22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이 웰즈 장로가 콜롬비아의 부카라망가 스테이크를 조직하러 왔다.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인 해터 엘리어스 아리자는 5년 뒤에 스테이크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인시그나리스 부장에게 회중 앞에서 일어서도록 청했을 때의 감동적인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 “넬슨 장로님께서 스테이크 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회원이 그를 지지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콜롬비아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나라이다. 그 도시에는 높은 오피스 빌딩, 현대 기술 및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 및 사업가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소요도 극심하다. 도심 대광장의 푸르고 평온한 분위기는 가난한 이웃 지역의 비포장 도로의 암울한 회갈색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많은 시민이 병고와 실업에 직면해 있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희망은 거의 없다.

호레이쇼 부장에게는 스테이크 회원들의 상태와 복지가 중대한 관심사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있지만, 소년 시절의 가난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1936년 호레이쇼가 태어난 직후 부친이 가족을 버렸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과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세탁이며 다리미 일을 했다.

## 복음의 그물을 펼침

그는 “누구든 병든 회원이 있으면 나는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 문제나 결혼 문제가 있는 회원도 걱정거리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속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호레이쇼가 지방부장이었을 때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두세 시간 이상 가야하는 거리인 자기 고향 바랑카베르메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선교부장은 처음에는 그 고장을 개척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으나 호레이쇼에게 그곳에 한 명의 선교사를 동반하고 다녀 와서 건의해도 좋다고 했다.

그 이후 그들이 첫 토론을 가르치러 그곳으로 가던 중에 그들의 차가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사탄이 우리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되돌아오는 길에 자기 차를 다시 찾게 되기를 희망하여 들뜬에 차를 숨겨 두고 가족과 선교사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35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는 선교사에게 “여기 그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우리 차를 찾아올 동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사뭇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선교부장은 선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곧 이어 이틀씩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다. 인시그나리스 부장은 매번 그들을 태우고 다녔다. 선교사들은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숙식하며 가르쳤다. 곧 장로들이 그곳에서 상주하며 일하게 되었다.

그 도시의 첫 개종자는 그의 친척 한 사람과 그녀의 약혼자였다. 그후 사람들이 열 명, 열두 명씩 단체로 침례받기 시작했다고 호레이쇼 부장은 회고한다. 일 년 후 그 지부가 와드가 되었으며 삼 년 후에는 그곳에 육백 명의 교회 회원이 있었다. 오늘 날 바랑카베르메자에는 팔백 명의 회원과 두 와드가 있다.

“어느 주일날 나는 모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으나 곧 바로 바랑카베르메자로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헤르만노(형제라는 서반아어) 나는 오늘 아내에게 우리가 함께 오늘 교회에 가려는데 만일 그곳에서 친구 한 사람을 찾게 되면 침례받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시그나리스 부장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그 모임에 가기를 원하셨던 이유였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후일 그 와드의 감독이 되었다.

#### 가정에서의 복음의 힘

인시그나리스 부장은 복음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이 되기 일 개월 전에 아내 도라와 함께 인봉받기 위하여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려고 그들이 저축한 돈을 썼다. 그들이 가족 인봉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타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다섯 자녀를 두었는데 휴고와 디오네는 각각 결혼하여 자녀를 하나씩 두었고, 아들 호레이쇼는 콜롬비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십대의 조지와 밀레이디는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

아들 호레이쇼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성장기에 가족이 종종 같이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교회에 관한 필름스트립을 보여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휴고는 선교사 부름에서 해임될 때 부친과 접견한 일을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마치 선교사 기간 중에 나를 지켜 주던 천사들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척 고독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 소년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울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부친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부친의 품에서 피난처를 얻고 싶어했으며 부친은 나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나는 큰 사랑을 즉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을 모두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오네와 밀레이디가 천주교 종교 의식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다니는 천주교 소속 여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친은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했다. “학교 당국에서는 만일 내가 우리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다 받도록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디오네는 말한다. 두 딸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 아버지의 모범

그 직후 한 친구가 “디오네, 너는 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디오네는 “그것은 우리 아빠의 모범으로부터 나오는 거야.”라고 대답했다.

인시그나리스 부장은 그의 지도력, 매력적인 성품,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 따뜻하고 친절함, 따뜻하고 친절함 미소로 인하여 부카라망가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 받는다. 그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신문과는 사람도 변호사나 정부 고관과 똑같은 내용의 말을 듣는다. 그는 최근에 감옥에서 풀려나 일거리를 찾고 있는 길거리의 행상에게서 물건을 산다. 거리에서 행상하는 어떤 여인을 껴안아 주며 인사한다. 그 여인은 교회 자매이며 그는 대중 앞에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봉사할 수 있으므로 무척 행복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 이상 더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매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 1839

년 폭도들이 마르다  
페인 존스 토마스와  
그녀의 남편 및

그들의 네 자녀에게 강제로 미주리주  
파웨스트를 떠나게 했을 때 대지에는  
15센티미터나 되는 눈이 쌓여 있었다.  
마르다는 언제 아기를 낳을지 예상할 수  
없는 임신부였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미주리강까지 걸어가 강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몇몇  
형제들이 토마스 형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쪽으로 데려 갔다.

토마스 형제는 부인 마르다에게  
돌아와서 다른 말일성도들이  
파웨스트에서 마차나 말도 없이 곤경에  
빠져 있으며, 폭도들은 떠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토마스 마르다 자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남편이 ‘우리 말과 마차를  
파웨스트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요?’라고 물었다.

“나는 ‘좋아요. 마차의 짐을 저 통나무  
옆에 내려 놓으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진동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겠요?’라고 물었다.

“‘데이비스 카운티에서 화이트  
자매님이 눈보라 속에서 통나무 옆에  
누워 아기를 낳은 것과 똑같이  
하겠어요.’

“남편은 ‘당신의 믿음대로 되도록  
기원하겠요.’라고 말했다.

“모든 짐을 그 통나무 옆에 내려  
놓았다. 아나니 다를까 그날 밤 진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마가렛 스무트를



## 지혜롭고 품위있게

# 문제에 대처함

목적 : 모든 여성이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고 품위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청하러 사람을 보냈다. 그녀는 나의 침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때 강변의 허허벌판에 있었다. 나는 '아, 누울 자리는 충분합니다.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스무트 자매와 몇몇 장정들이 마르다를 위해 모닥불 옆에 침대를 마련했다. 다른 여성들같은 이런 상황에서 잘 헤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왕이라도 그런 침대에는 결코 눕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곳은 포근한 장소였으며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건강한 육동자를 낳았다.

이 여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밝은 용기를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남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평정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여 그녀는 눈덮인 벌판에서 출산하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릴 수 있었는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마르다가 적은 일기를 보면 그녀가 지녔던 힘의 원천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878년 6월 27일, 남편은 땅에 묻혔다. 이로써 나는 수많은 자손과 함께 성도들의 가운데 서 있게 되었으며 이 사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때로는 슬픈 구름이 나의 머리 위에 떠돌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경의 날에 지혜와 평안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

스테파니 클라프 오리슨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위안을 구하는 것을 배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19세가 된 1978년에, 데이트하고 있던 귀환 선교사 리키 티 오리슨으로부터 그가 임파선암의 일종인 호지킨스씨병에 걸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비록 당시에는 오리슨의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 있었으나 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스테파니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후 며칠 동안 내 마음에는 단 하나의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날 생각에 잠겨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나를 감쌌습니다. 그 느낌은 과거 그대로의 나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 즉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그 이후로 겪은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리키 형제는 몇 주 후 그녀에게 충혼했으며 스테파니는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후 8년 동안 리키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았으나 1986년 3월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6개월 후에 죽었다. 스테파니를 아는 사람들은 리키가 병을 앓고 있을 때나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그녀의 활발한 용기와 낙천적인 태도를 보고 몹시 감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과 죽음은 내가 주님과 죽음 이후의 삶과 영원한 결혼 성약과 그 이외에 모든 복음의 가르침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을 그분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래로 나는 큰 평안을 느껴 왔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그녀에게 시험의 시간을 견디어 내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축복받아 용기와 화평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 (야고보서 1:5 참조) □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해 온 사람에 관하여 토론한다. 그들에게 시련의 기간에 힘이 되어 준 것은 무엇인가?

2.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관련 자료는 *가정의 밤 자료집*, 43~47, 138~45, 173~74페이지를 참조한다.

유의 사항 :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에 1987년 10월 대회에서 행한 말씀이 실리게 된다. 방문 교사는 방문 교육 메시지를 토대로 대관장단의 말씀을 선정해서 참고해야 한다.

# 빛의 수확 : 파리 미술 선교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서 최근에 전시되는 주요 작품들은 다섯 명의 십구 세기 “미술 선교사”와 그 이외에 파리의 미술 학교에서 공부한 말일성도 미술가들의 작품이었다.

젠 언더우드 편보로우 부편집자

**보** 통 우리는 선교사라면 전할 메시지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남녀 교사로서의 선교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십구세기 후반 다섯 명의 청년은 세상에 나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도록 성별받았다. 이들은 “미술 선교사”—존 하픈, 로러스 프랫, 에드윈 이만스, 존 비 페어뱅크스 및 허만 유고 하아그 등으로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파송되었다.

그 당시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당대 미술의 중심지였으며 다른 여러 명의 젊은 말일성도 화가도 이미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존 티 하우드, 그의 제자이며 후일 부인이 된 헤리엇 리처드 하우드, 존 윌라드 클라우슨 및 사이러스 달린 등이었다.

불란서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유타로 돌아와 활동한 말일성도 화가는 다음과 같다. 1) 제임스와 헤리엇 하우드. 제임스 테일러 하우드(1860-1940)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파리로 간 유타주의 최초의 화가였다. 파리로 떠나기 전에 그는 그의 제자인 헤리엇 리처드(1870-1922)와 약혼을 했다. 그녀 역시 미술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파리에서 결혼했다. 2) 사도 율스 프랫의 아들인 로러스 프랫(1855-1923)은 미술 선교사로 파리로 가기에 앞서 두 번이나 유럽을 방문했었다. 3) 브리감 영의 손자인 윌라드 클라우슨(1858-1936)은 뉴욕시티에서 삼 년간 미술 공부를 한 뒤 아내와 함께 파리로 건너 갔다. 그는 물론 미술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랜 기간인 오 년 동안 그곳에서 보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의 금년도 주요 전시회에서는 미술 선교사 하우드와 클라우슨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빛의 수확 : 파리 미술 선교 사업 및 유타 인상주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에는 150점의 그림과 50점의 사진 및 기록이 있다. 이 전시회에는 그들이 파리로 가기 이전의 작품으로부터 파리 유학 기간 및 유타로 귀환한 후에 만든 작품에 이르기까지 말일성도 미술가들의 발전 과정을 보여 주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교회의 귀중한 자원을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1890년에 이 첫 선교사들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솔트레이크 성전이 거의 40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던 터였다. 그 아름다운 석공 작업, 목공 작업, 유점산 아트 유리 및 비품을 갖춘 이 주님의 집은 성도들이 표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솜씨와 예술적인 수완을 나타내게 되어 있었다. 이제 곧 여러 엔다우먼트실의 벽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그림을 그릴 것인가?

청년 미술가 존 하픈은 자기 자신이나 교회 내의 다른 어떤 미술가도 그 위대한 장면을 정확한 방법으로 그려낼 능력이 아직



# 사업 및 유타 인상주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여러 성전과 시온의 주거지를 장식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린다 존스 기브스, 빛의 수확: 파리 미술 선교 사업 및 유타 인상주의 [미술관 전시회 목록, 3페이지] 그는 1890년, 봄 올슨 프랫 장로의 아들인 로러스 프랫과 함께 파리 유학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대관장단의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을 방문했다. 1890년 6월 3일 하픈 형제는 프랫 형제, 페어뱅크스 형제와 함께 최초의 세 미술 선교사로 성별받고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보라.”는 말씀을 들었다. (기브스, 18페이지)

개척자 배경을 지닌 그 선교사들은 파리의 루블 박물관과 다른 박물관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런 그림은 너무나 기대 이상의 것이어서 나는 그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에드윈 이만스는 기록했다. (기브스, 26페이지) 줄리안 아카데미에서 그 선교사들의 공부는 무척 힘든 것이었다. 그들은 조반 전에 일어나 해부학을 공부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때가 흔히 있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한 시간의 점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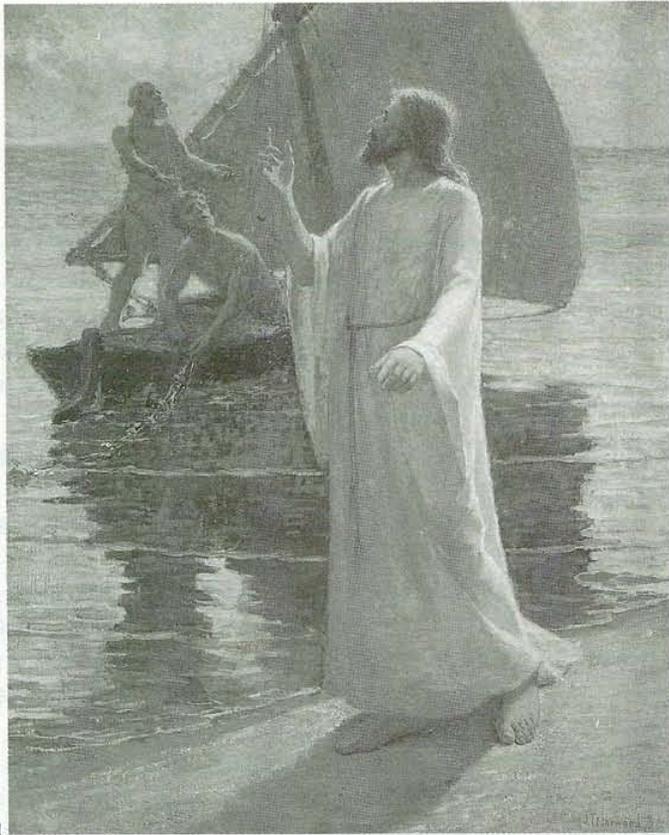
이외에는 산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렸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밤 10시까지 야간반에 참석했다. 만일 자유 시간이 생기면 시골에 가서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박물관에 가서 작품 복제 작업을 했다. 페어뱅크스는 “만일 우리가 뛰어나게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부가 부족했던 탓은 아닐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기브스, 23페이지)

이 화가들은 파리에서 인상주의 화풍의 기법을 배웠다. 이 화풍은 주제를 사실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실제 모양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수면과 기타 표면에서 빛이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는 화풍이다. 존 하픈의 설명처럼 이 화풍은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면에서 사물을 바라볼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그림에서는 개개의 나뭇잎, 풀잎, 및 기타 사물의 모방을 위한 기계적인 효과나 엄밀한 세부 묘사를 추구하기를 그만두고 향기, 혼, 감각, 선과 색의 아름다움을 찾게 될 것이다.” (기브스, 44페이지)

하픈이 먼저 솔트레이크시티로 귀환하여 성전 벽화 작업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1892년 말까지 선교사가 모두 귀환했다. 그리고 벽화는 1893년 4월 6일 성전 헌납 시기에 맞추어 완성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벽화 원본은 다시 그려졌으나 남아 있는 원본 부분의 대형 사진이 전시회에 진열되었다. 그 미술 선교 사업은 솔트레이크 성전 안에서 행한 작업 이외에 다른 열매도 맺었다. 이 귀환 미술 선교사들은 유타주에서 많은 학생에게 그들의 기법을 가르쳤다. 또 그들은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 존 하픈의 신념을 퍼뜨렸다. □

4) 존 비 페어뱅크스(1855~1940)는 최초로 파리에 파견된 세 명의 미술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5) 존 하픈(1856~1910)은 스위스 태생이다. 개종을 한 그의 부모는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주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 그는 그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부름받았으며 미술 분야의 일을 시작하는 큰 책임을 맡았다. 6) 에드윈 이만스(1860~1946)는 전신국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두 명의 사업가가 그의 재능을 보고는 파리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도록 추천하고 재정을 뒷받침해 주었다. 7) 허만 유고 하야그(1871~1895)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만성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사인 제임스 하우드의 권고에 따라 1892년에, 마지막 미술 선교사로 파리에 건너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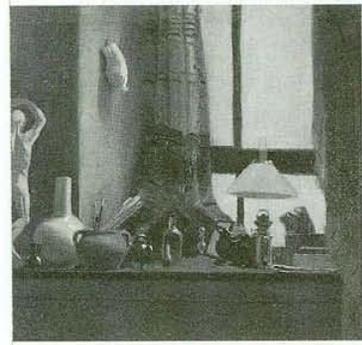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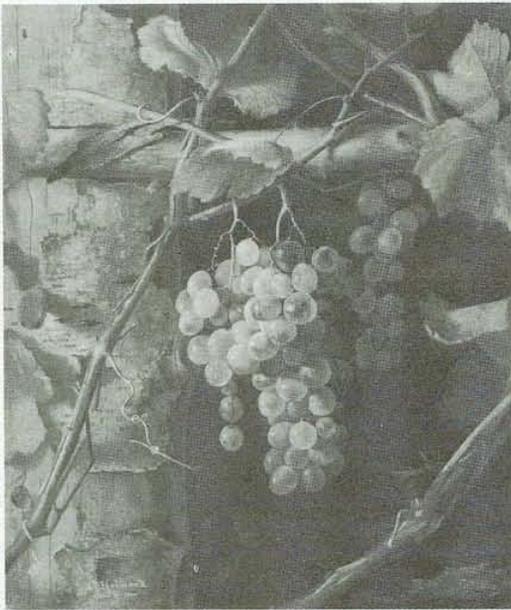
1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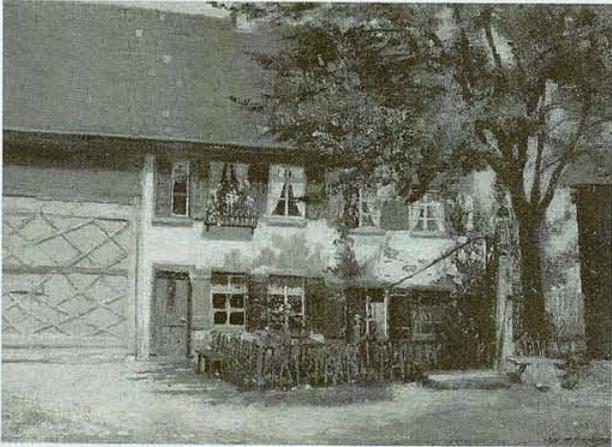
3

1. 제임스 하우드 작. 나를 따라라, 1922년. 2. 제임스와  
 헤리엇 하우드, 파리 화실, 1890년대 초. 3. 제임스 하우드,  
 포도 송이, 1884년(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관 소장). 4. 제임스  
 하우드, 이탈리아의 꽃소녀, 1890년(로이드와 비벌리 콜 박사).  
 5. 존 웨어뱅크스, 프랑스의 뒷뜰, 1890년대 초(피어뱅크스 가족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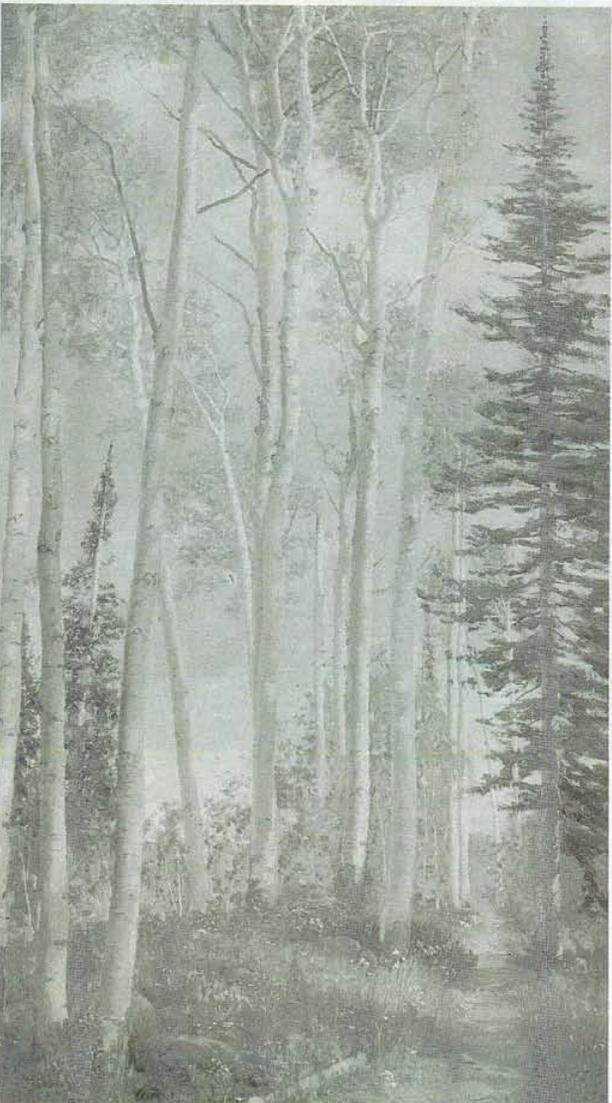




6



7



10



9



6. 로러스 프렛, 농촌 풍경, 남 솔트레이크시티, 1890년대(스프링필드 미술관). 7. 존 하프, 스위스에 있는 어머니의 집, 1891년(레이첼 하프 소장). 8. 존 하프, 흔들리는 백양나무, 백양나무 숲, 1907년(스프링필드 미술관). 9. 존 클라우스, 메리 엘리스 클라크의 초상화, 1893년(브리검 영 대학 미술관). 10. 허만 하야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침례 요한, 1892년(작품 번호, 1, 2, 10번은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소장. 모든 그림은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로널드 더블류 리드와 로버트 오 데이비스가 촬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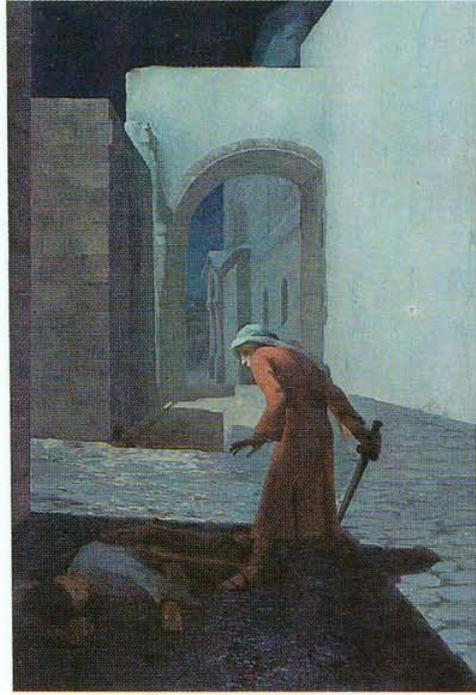




1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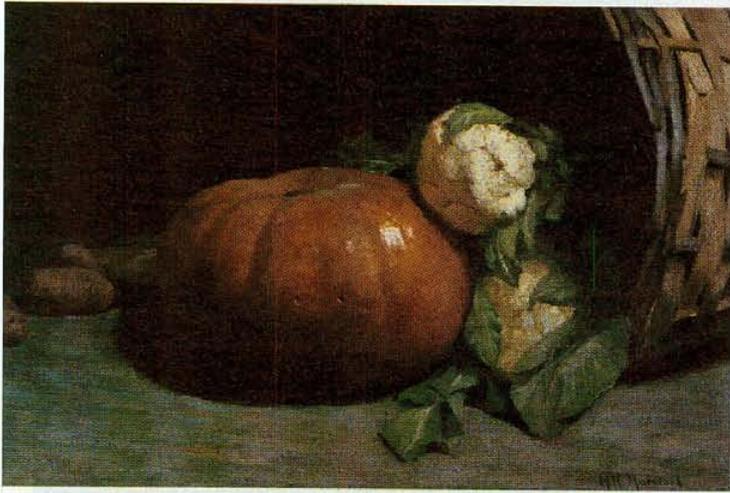
5



3

1. 존 클라우슨 작, 에밀리 캐츠 웰스, 1909년. 2. 허만 하야그, 레이벤의 죽음, 1894년. 3. 에드윈 이반스, 송아지, 1899년(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관 소장). 4. 존 하프, 접시꽃에 싸여 있는 소녀, 1902년. 5. 제임스 하워드, 저녁 준비, 1891년(대학 합동 소장품, 유타 미술관). 6. 해리엇 하워드, 호박, 꽃양배추, 감자와의 조용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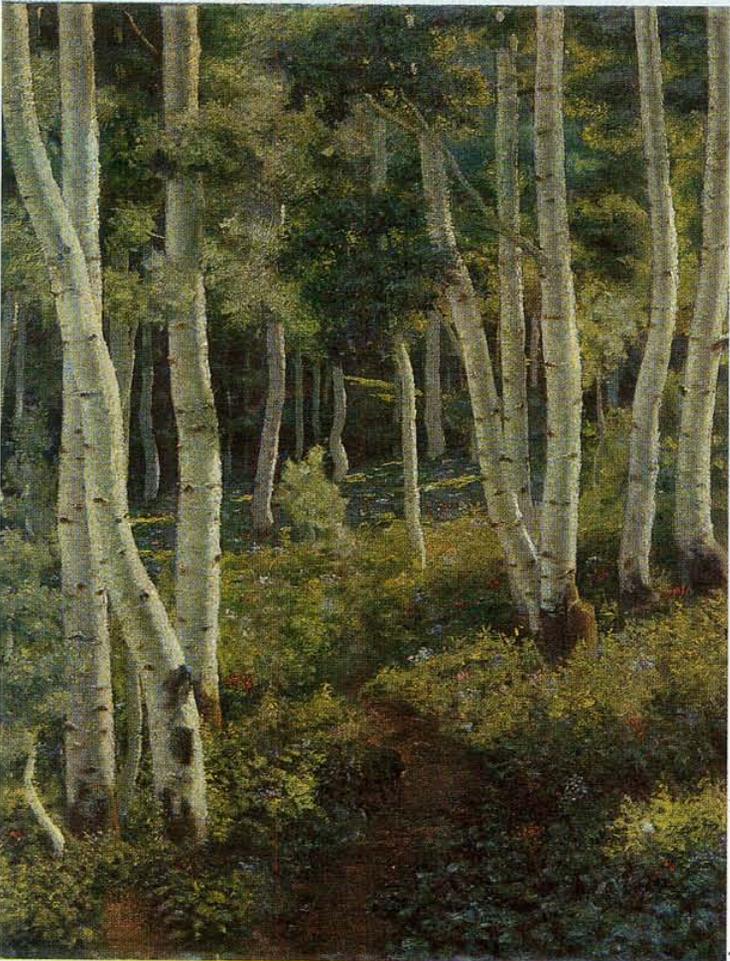
1892년(유타 미술관 소장). 7. 존 페어뱅크스, 백양나무 숲, 1916년(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관). 8. 로러스 프렛, 요단강 풍경(유타), 1901년. 9. 에덴 동산, 작자 미상, 한 명 이상의 화가가 그렸을 가능성이 큼, 솔트레이크 성전 정원실 풍경.



6



9



10



13



14



12

15



10. 존 페어뱅크스, 프랑스의 곡식 더미, 1890년경(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관). 11. 존 클라우스, 프랑스 풍경, 1890년대 초기 작(브리감 영 대학교 미술관). 12. 제임스 하우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1890년(스프링필 미술관). 13. 로리스 프렛, 건조기, 1894년(유타 주립 역사 박물관, 유타주 역사 위원회). 14. 에드윈 이반스, 추수, 1895년(윌리스와 프랑시스 베넷 소장). 15. 존 하픈, 밀밭, 1901년. (작품 번호 1, 2, 4, 9, 15 교회 역사 및 미술관 소장) 1890년대의 유타 그림으로 가끔 보여지는 것은 추수로써 그것은 당시 프랑스 풍경화의 주제이기도 했다. 유타나 프랑스의 화가들은 주제의 장소를 알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경치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풍요로움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존 하픈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것이 미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을 고취시키고 향유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삶의 서정과 조화를 느끼는 것"이 미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



3



2



4



5



유타의 화가들을 파리로 보내 공부를 시킨 목적의 하나는 그들의 재능을 솔트레이크 성전의 벽화를 그리는 데 활용하자는 데 있었다. 여기에 보여지는 예는 벽화를 계획하는 동안 그려진 것들이다. 에덴 동산의 벽화에서 사인이 없는 작품 번호 1, 2번은 여러 명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나, 2번은 에드윈 이반스가 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찰스 알 세비지의 1911년 사진은 솔트레이크 성전의 벽화 일부를 보여 준다. (교회 역사 분과 소장) 4. 존 하프, 연도 미상(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관). 5. 존 하프, 에덴 동산, 연도 미상(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 1894년에 찰스 알 세비지가 찍은 이 사진은 선교사를 파리로 보내는 일을 승인한 대관장단의 모습을 보여 준다. 왼쪽부터: 조지 큐 캐넌, 제1보좌: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 조셉 에프 스미스, 제2보좌,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은 기초 골격을 마무리하면서 관석을 놓던 1892년 4월 6일에 찍은 것이다.

# 웨일즈인 덴 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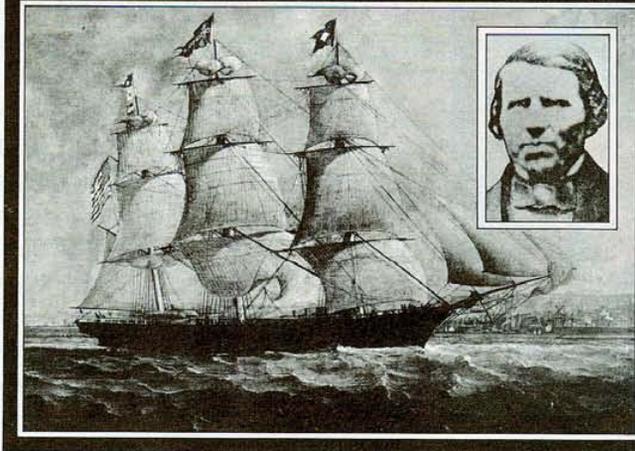


사진 속의 인물인 덴 존즈이다

로널드 디 테니스

**1810**년 8월 4일 웨일즈의 광산 지역에서 덴 존즈가 태어났을 때는 아마도 그가 그곳을 떠나 미국으로 갈 것 같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에서 현대의 예언자를 알게 되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자기 고향에 돌아오리라는 것은 더욱 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덴 존즈는 영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널리 알려진 말일성도 선교사의 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그의 생애를 살펴 보면 이 선교사의 성공은 주님의 인도의 손길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덴은 북부 웨일즈 할킨의 작은 교구에서 광부인 토마스 존즈와 부인 루스의 여덟 자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부친 토마스 존즈가 감리교도로서 “블리너”(장로 내지 집사에 해당됨)였다는 사실은 어린 덴이 감리교도로 자랐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일생을 두고 그를 괴롭혔으며, 51세에 그가 사망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만성 폐질환은, 그가 한때 할킨의 남광산에서 생활했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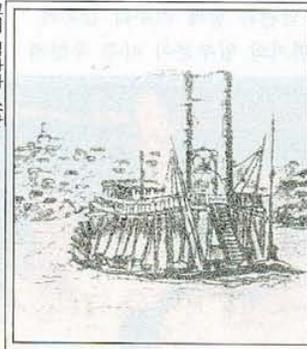
## 미국에서의 새 생활

덴 존즈의 일지나 일기가 발견된 것이 없으므로,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는 16세 경에 선원이 되어 그 이후 십 년 동안 긴 항해 생활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1837년 1월 3일, 26세에 할킨에서 서쪽으로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덴비 출신의 제인 벨링과

결혼했다.

덴과 제인은 후에 미합중국으로 이민갔으며 1841년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살았다. 같은 해 5월 10일 덴 존즈는 미국 시민으로서 소형 증기선 리폴호를 미시시피강에서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했다.

교회 역사과 소장



덴 존즈의 연필 소묘, 증기선, 메이드 오브 아이오와, 나부시가 뒤에 묘사되어 있다.

존즈는 미시시피 상류에서 등록된 배 가운데 가장 작은 배의 공동 선주이자 선장이 되었다. 육 개월 후 리폴호가 일리노이주 걸리너 근처에서 바위에 부딪쳐 침몰하자 덴은 또 다른 증기선 메이드 오브 아이오와호의 건조 작업을 곧 시작했다. 1842년 10월에 아이오와주 오거스타의 사업가인 레위 모피트와 합작으로, 좀더 큰 배로 미시시피강을 오르내리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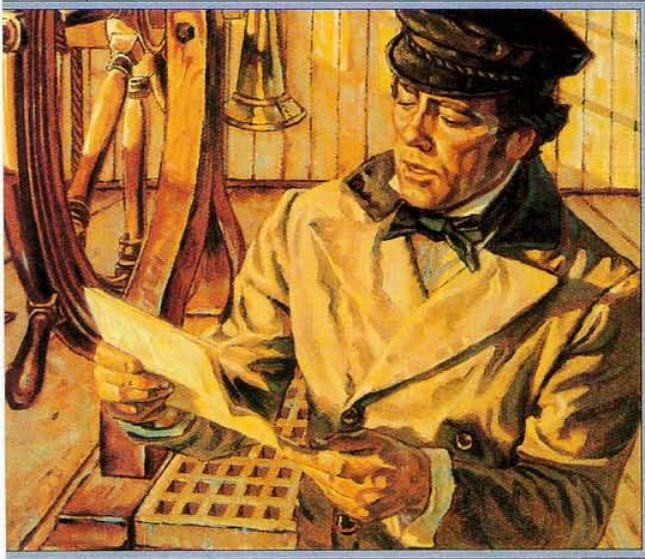
토마스 샵이라는 사람이 워쇼 시그널 신문에 물몬이라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관하여 기고한 부정적인 논평에 존즈 선장이 주의를 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다. 덴 존즈는

1847년에 쓴 말일성도 역사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그 비난을 주의깊게 살펴본 결과 그들이 너무나 광적으로 과장해서 말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 스스로 자기 말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진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했다.”

### 엠마 스미스의 편지

그리고 그는 엠마 스미스의 편지 내용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말일성도의 믿음에 동정심을 갖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엠**마 스미스가 옥에 갇힌 요셉 스미스를 찾아 갔을 때 쓴 편지를 읽고 덴 존즈는 동정심을 느꼈으며, 말일성도의 믿음을 연구했다.

설명했다. “얼마 후 엠마 스미스가 남편과 함께 미주리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자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 아주 우연히

나의 손에 들어 왔다. 그 편지 조각이 나에게 준 느낌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나와 같이 신약전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시련 중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간증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신약전서를 믿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이전에 읽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권고, 더 많은 지혜가 있고 더 복음적이고 더 거룩한 영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덴 존즈는 그 편지에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과 며칠 동안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그는 이미 거의 완전한 말일성도가 된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덴 존즈는 1843년 1월 19일에 미시시피강의 얼음같이 찬 물에서 침례를 받았다.

덴 존즈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 대면은 침례받은 지 삼 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메이드 오브 아이오와*호가 영국에서 이민오는 삼백 명 이상의 개종자를 하선시키기 위해 나부에 도착한 1843년 4월 12일 오후에 그들은 처음 만났다. 덴 존즈는 요셉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열의로 가득 차서 선창의 군중을 둘러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생각한 예언자같은 사람 즉 염소 가죽 옷을 입고 “긴 수염에 흰 머리를 한” 예언자라는 그의 생각에 부합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흰칠하게 잘 생긴 어떤 남자가 보트에 있는 그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악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형제님.”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도, 그는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존즈는 요셉 스미스가 두번째 돌아왔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즈 형제는 잠시 요셉 스미스를 유심히 본 후 예언자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재검토했다. 그는 사 년 후 이렇게 적었다. “그의 단정한 용모와 명랑하고 가식없는 얼굴에서 나는 그가 전에 들었던 그런 교활하고 속임수에 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했다.” 요셉이 그에게 나부시를 안내해 주고 자기 가족에게 소개하자 덴 존즈는 그의 가장 열렬한 숭배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곧 그들은 십사 개월 후 예언자가 순교할 때까지 줄곧 계속될 굳은 우정을 맺었다.



1847년 7월부터  
1848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덴  
존즈는  
웨일즈에서  
선교 사업을  
관리하면서 월  
평균 135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웨일즈에서의 두 번의 선교 사업을 마친 댄 존스는 “시온으로  
집합”하기를 원하는 웨일즈 성도들의 이면을 도와 주었다.

## 예언의 성취

덴 존즈와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가 죽기 전날 밤 카테지 감옥 윗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요셉이 덴에게 죽는 것이 두려운지 껏속말로 물었을 때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존즈 형제는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업에 종사하면서 죽음이 두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언자는 “형제님은 웨일즈를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부여받은 선교 사업을 죽기 전에 성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달 후 1844년에 덴 존즈는 요셉 스미스가 말한 대로 웨일즈를 향하여 장도에 올랐다. 제인 존즈도 남편의 이 첫 선교 사업에 함께 갔다. 덴과 존즈는 결혼하고 거의 팔 년이 지났으나 생존해 있는 자녀가 없었다. 그들은 세 아이를 매장했는데 그중 둘은 나무에서 묻었다. 일곱 아이가 더 태어났지만 그중 두 사람만 살아 남게 되었다.

존즈 장로는 아내 제인이 살았던 마을 덴비에서 약 삼십 킬로미터, 자신의 소년 시절 고향인 할킨에서 불과 이십일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부 웨일즈의 렉스햄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덴이 모국어로 복음을 가르친 첫 무리 가운데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틀림없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는 웨일즈에서 거의 일 년을 보낸 후 브리감 영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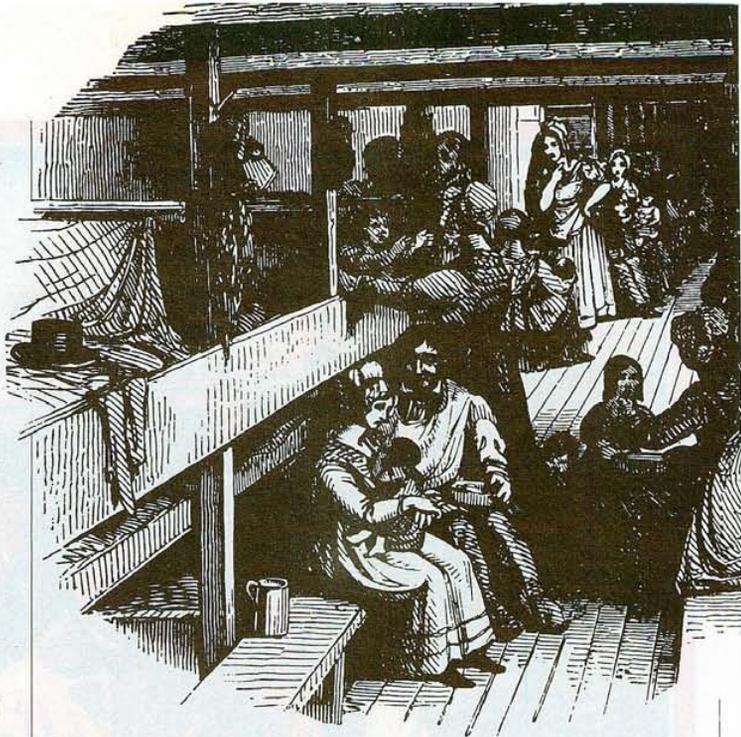
“저는 이곳에 온 이후 웨일즈어로 전도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어보다 웨일즈어가 더 좋아졌읍니다.”

존즈 장로는 1845년 단지 몇 명만 침례를 준 후 영국 맨체스터 대회에서 사우스 웨일즈의 머더 티드빌에 본부를 두고 웨일즈 전체 선교 사업을 관할하라는 지명을 받았다. 그

중앙 건물인 라넬리 예배당은 1849년 1월에 덴 존즈에 의해 헌납되었다.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종파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는 수천 명의 소작인이 급격히 발전하는 탄광 산업에서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으로 가기 위해 구릉 지대에 있는 전답을 버리고 떠난 와중에서 과거 이십여 년간 두드러진 성장을 경험한 도시였다.

존즈 부장이 머더 티드빌에서 지도자의 직책을 맡고 곧 직면한 큰 도전 가운데는 말일성도들이 드러낸 속임수라고 명명한 데이비드 윌리엄의 32페이지 두께의 소책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존즈 부장이 팔 개월 전에 펴낸 소책자를 맹렬하게 반박하고 조롱한 것이다. 덴 존즈는 지체없이 윌리엄에게 응수하는 16페이지의 책자를 발간했다.



## 많은 글을 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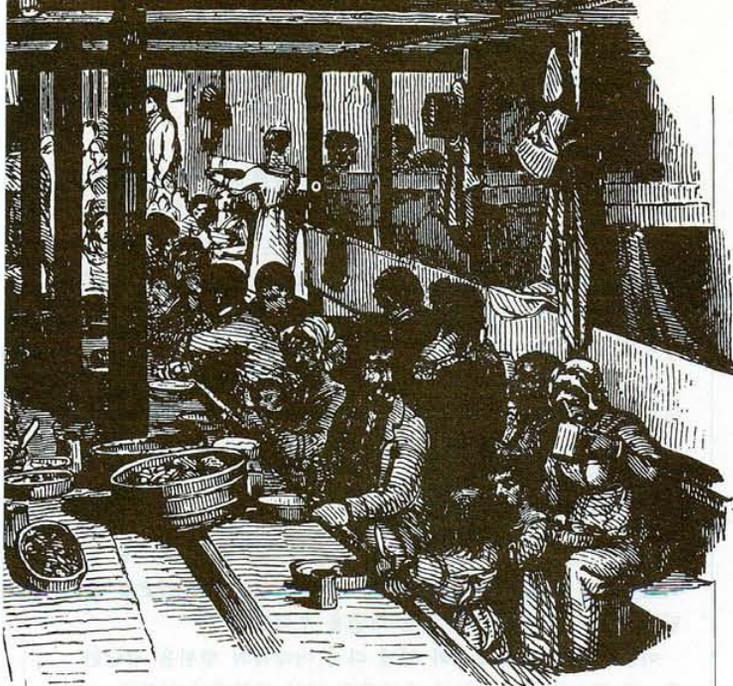
존즈 부장은 이 이외에도 교회에 관한 거짓 소문과 기사를 논박하기 위해 프로핏 오브 더 주빌리라는 웨일즈어로 된 간행물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 년 반 동안 삼십 호가 발행되었으며 1849년 1월에는 자이온즈 트럼펫으로 제호가 바뀌었다. 덴 존즈는 또 이 선교 사업 기간 중에 웨일즈 말일성도 찬송가, 104페이지의 교회 역사, 적어도 열다섯 권의 소책자, 교회를 옹호하기 위한 288페이지의 경전 주해서도 출판했다.

그의 전도와 출판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지방 성직자들의 반응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덴 존즈는 1847년 9월 29일에 올슨 스펜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곳의 소동은...매일 매일 더 격렬해지고 악화되고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육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전 마을과 이 주변 지역 전체가 사실상 물문이즘에 열중하거나 반대하여 열광하고 취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나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십육 개월 후 존즈 장로가 삼백 명 이상의 개종자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머더 티드빌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밤낮으로 경호원이 그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소요가 극심했다.

이 투쟁에서 얻은 가장 훌륭한 것 중에서 머더 티드빌에서 멀지 않은 에버데어의 침례교 평신도 목회자인 윌리엄 호웰즈의 개종을 들 수 있다. 그는 동료 목회자들이 꾸며낸 물문을



더블류 더 할버슨 사진



있었다.

그가 다시 한번 고국을 떠날 준비를 했을 때, 이백 명 이상의 웨일즈 말일성도들도 그와 함께 동행하여 시온에 집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키드웰리 출신의 개종자인 엘리자베스 루이스 자매의 도움을 입어 이민갈 수 있었으며 그녀 역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했다. 1849년 2월 26일 부에나 비스타호가 출항할 때 그 배 위에는 특별한 작별 노래를 부르는 이백사십구 명의 열성에 찬 웨일즈인 무리가 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민용 선박의 상태는 대체로 불량했다. 승객들은 비좁은 객실, 상한 음식, 거친 폭풍, 전염병 등으로 고생했다. 총관리 역원들은 이민하는 성도들에게 규율과 청결의 중요성을 권고했으며 6주 동안 대양을 횡단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와드 형태로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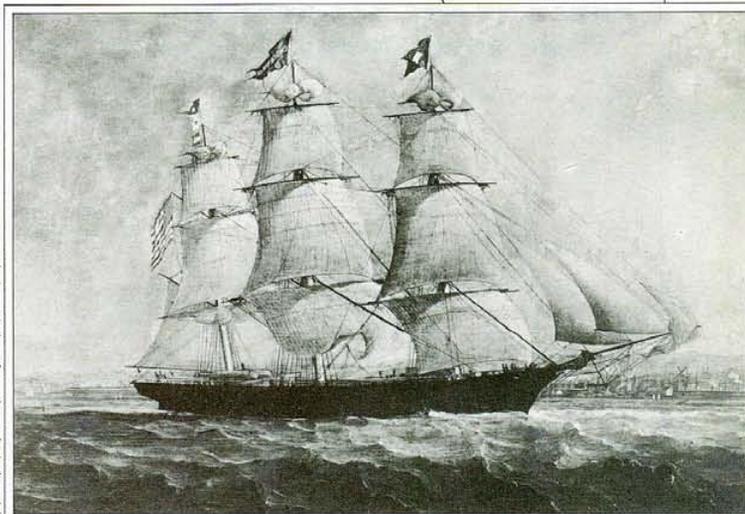


대적하는 거치른 비난에 의구심을 품었으나 그래도 그 미움받는 물문의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는 것이 남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회중 가운데 한 미망인에게 그녀가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말일성도 소책자를 구해 주도록 요청했다. 존즈 장로는 1847년 11월 3일에 올슨 스펜서에게 다시 보낸 서신에서 호웰즈가 그런 소책자를 읽은 결과와 그들의 첫 대면에 관하여 이렇게 썼다. “그는 설교 한번 들은 일 없이, 단지 나의 간행물을 읽었을 뿐이지만 침례받기 위하여 직접 칠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왔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람 못지 않게 좋은 느낌을 갖고 들어왔으며 지금 막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윌리엄 호웰즈는 다음 해 일 년 동안 약 백 명의 개종자를 교회로 인도해 왔으며 1849년에는 프랑스에 파견된 첫 말일성도가 되었다.

#### 대서양 횡단

리스 프라이스가 침례교를 떠나 말일 성도에게서 피난처를 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덴 존즈와 기타 신앙의 옹호자를 믿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 “나는 성도의 방어(덴 존즈의 소책자에 관한 참고서)에 관하여 듣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침례 교회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하고 성도들로부터 침례받았습니다.”

1847년 7월부터 1848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존즈 부장과 점점 많아지는 그의 선교사 부대는 매월 평균 135명의 개종자 침례를 베풀었다. 덴 존즈가 1849년 1월 그의 첫 부름을 마칠 무렵에는 웨일즈의 말일성도의 수가 거의 사천 명에 육박하고



메사추세츠 살렘, 피바디 박물관 소장

존즈 형제는 웨일즈에 있는 성도들에게 뉴올리언즈로부터 그 부에나 비스타호의 성공적인 항해에 관한 열성적인 보고서를 보내고 그들도 뒤따른 준비를 하도록 격려했다. 비록 그 여행이 한 어린이가 폐병으로 죽고 이십사 세의 젠킨 윌리엄스가 콜레라로 죽음으로써 얼룩지기는 했으나 세인트루이스에서 그가

보낸 편지도 역시 밝은 것이었다. 댄 존즈는 사방에 콜레라의 위험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1849년 4월 30일 윌리엄 필립스에게 기쁘게 편지를 보냈다. “오늘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에 넘치며 자신이 받은 특권을 기뻐하며 전진해 나아가려는 소망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삼 주일은 부에나 비스타호의 승객 이백사십구 명 중 사십사 명이 유행성 콜레라로 죽었기 때문에 공포로 가득 찼다.

#### 가족과의 작별

생존한 웨일즈 성도 가운데 약 삼분지 일은 카운슬 블라프에서 몇 주 동안 원기를 회복하고 준비한 후 조오지 에이 스미스 대대의 일원으로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댄 존즈, 아내 제인 및 사 개월된 딸 클라우디아가 있었다. 그들은 두 아이를 또 웨일즈에 묻고 왔다.

존즈 가족은 솔트레이크시드의 템플 스퀘어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에 동포 웨일즈인들과 함께 정착했다. 그러나 다음 겨울에는 남쪽으로 약 이백사십 킬로미터 떨어진 유타주 맨타이에 가 있었다. 댄 존즈는 이곳에서 초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댄은 이 년간 농사를 지은 후 다시 전도 사업을 위해 돌아오라는 브리감 영의 부름에 응하여 한번 더 웨일즈로 여행했으며 이번 여행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가 없는 동안 웨일즈의 말일성도를 위한 출판 책임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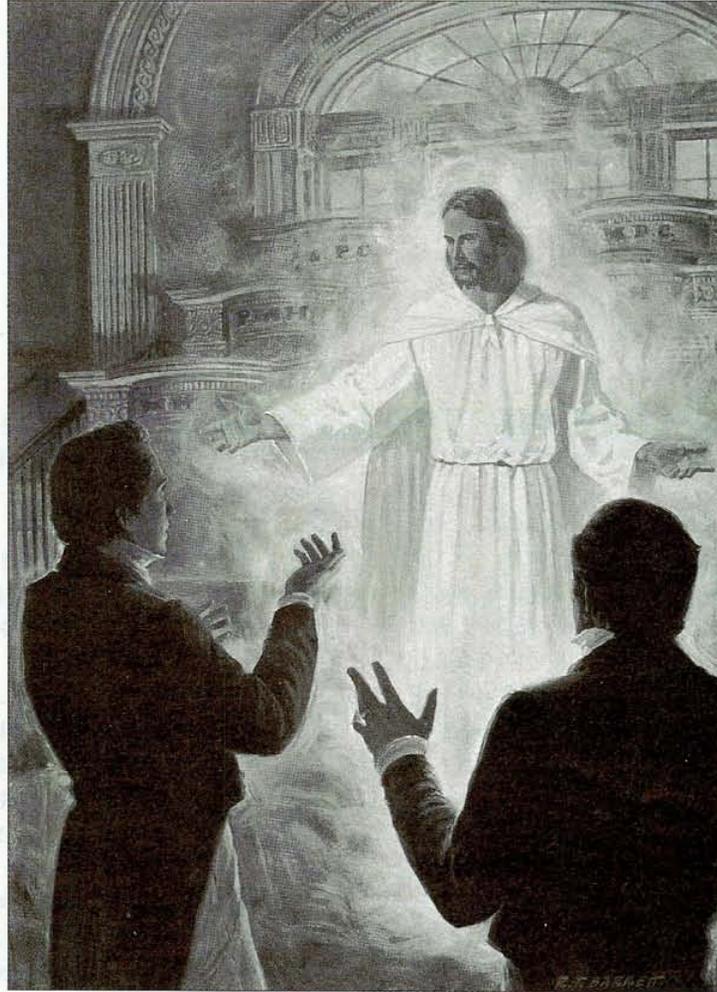
유능한 존 에스 데이비스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데이비스 형제는 수많은 소책자와 논문 이외에도, 표준 경전을 웨일즈어로 번역하여 자기 인쇄기로 출판했다. 댄 존즈는 1854년 데이비스 형제가 이민할 때 그 인쇄기를 구입했다. 존즈 부장은 그 이후 이 년 동안 자이온즈 트럼펫의 편집인으로 일한 외에도 교회를 수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소책자를 발간하고 웨일즈의 선교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이 기간에는 영국 섬나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종자 침례 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1854년부터 1855년 사이에 존즈 부장과 그의 선교사들의 평균 침례자 수는 월 육십오 명이었으며, 그것도 매우 두드러진 증가 수치이기는 했으나 이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존즈 형제는 1856년 4월에 해임되어 다시 한번 이주하게 되었을 때, 또 다시 대서양을 향해하는 사무엘 커얼링호를 함께 탈 약 육백 명의 웨일즈 성도 대원을 조직했다.

이번에는 손수레 부대와 함께 다시 미대륙의 평원을 횡단한 후, 댄 존즈는 오 년 동안 유타주의 여러 지역에서 살았다.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는 오랫동안 고생해 온 폐병으로 1862년 1월 3일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 또한 그는 자기 나라 말로 회복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 준 것에 대하여 영원히 그에게 감사를 돌릴 수많은 웨일즈인을 뒤에 남겨 두었다. □

로널드 디 테니스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풀류갈어 교수이며 유타주 프로보노스 스테이크, 프로보 계삼십일와드의 복음 교리반 교사이다.

# 으뜸된 선견자



제리 하스단 그림

요셉 스미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 세대에 전해 주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 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가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내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오류라고는 추호도 없습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66페이지)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완전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첫번째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서 2:17) 요셉은 그때나 그 이후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경청했습니다.

교육도 못받고 신학적인 훈련도 받은 바 없었던 요셉 스미스로부터 모세, 바울, 누가, 물몬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서 보다는 더 많은 분량의 경전이 인쇄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 예언자는 1829년 봄에는 매일 일곱 페이지 내지 열 페이지를 번역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놀랄 만한 계시들

그러나 그 계시의 분량만이 감탄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도 또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없어져서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 중요한 교리들이 이 예언자들

통하여 전하여 졌습니다. 이 “간결하고 진귀한” 것들은 감추어지거나 거두어져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일 13:34 참조)

여기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하신 위대한 진리에 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1833년 요셉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는 없느니라.”(교성 93:29)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계시는 인간에게 그 자신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보다 올바른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는 각자 아담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계시가 전하여 졌습니다.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네 범법을 이미 용서하였느니라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시조의 죄를 대속하였고 이로써 양친의 죄는 자녀의 머리로 돌아올 수 없도다. 자녀는 창세 전부터 온전함이니라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느니라.”(모세 6:53~54; 교성 93:38; 신앙개조 제2조 참조)

## 생의 목적

이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됩니다.

“또 수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의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3, 39)

오늘날 지상에서의 삶에 무슨 뜻이나 목적이 있는가 하며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생의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 3:25)

회복된 진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다시 확신을 주는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에 살고 있는가? 인간 존재에 있어 과연 목적과 뜻이

있는가?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불법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 대답은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진리로부터 옵니다. 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거룩한 목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계시 및 다른 여러 가지 계시가 영감받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음의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 시험, 꾸짖음, 개선

요셉 스미스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견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참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쓰시는 예언자로 봉사하는 동안 시험하고, 꾸짖고, 개선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교성 5:10 참조)

요셉이 미주리주 리치몬드와 리버티 감옥에서 보냈던 1838년 12월 1일부터 1839년 4월 첫주까지도 그런 시험 기간에 속했습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이처럼 강제로나마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아마 예언자가 극히 분주하게 지냈던 성인 생활 중에 들이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으므로 그 감옥이 마치 “감옥 성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121편과 122편을 받은 곳도 리버티 감옥이었으며 이 계시는 어떤 경륜의 시대에 어떤 예언자가 받은 계시 못지 않게 가장 영감에 찬 계시에 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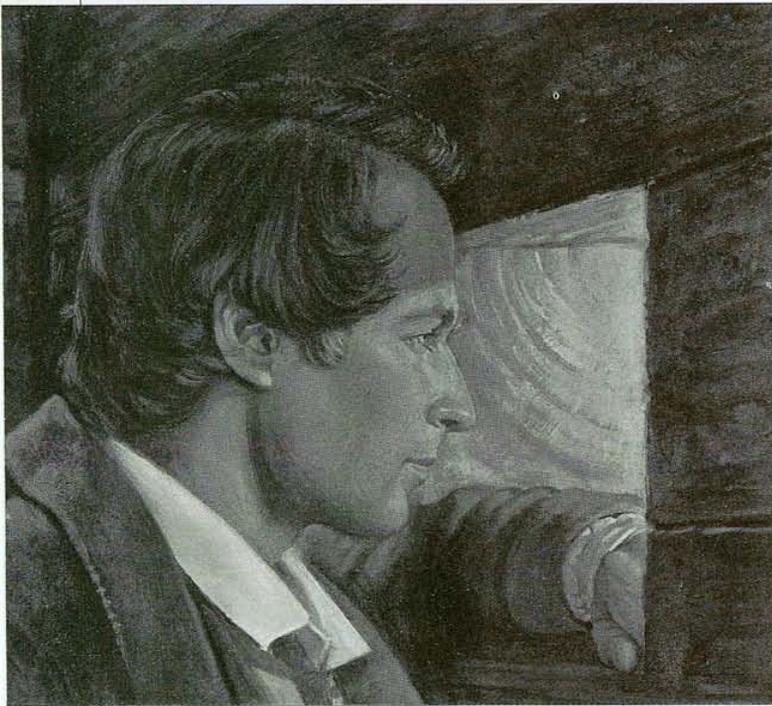
## “애굽에서의 요셉과 같이”

요셉은 리버티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가운데 한 편지에서 “나는 애굽에서의 요셉과 같은 느낌입니다.”라고 썼습니다.(요셉의 개인적인 저술, 딘 제시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년, 409페이지) 요셉이 경험한 이런 느낌은 니파이이서에 있는 중요한 성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 고대의 요셉은 “저는 나와 같으리니”라고 말일의 선견자에 대하여 말했습니다.(니이 3:15)

그 예언자는 고대의 요셉이 말한 “오뎀된 선견자”입니다.(니이 3:6~11 참조) 요셉 스미스 이세가 1834년 12월에 축복받았을 때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현대와 고대의 요셉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요셉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미래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이렇게 간증했다. “주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저가 내 몸의 소산들의 으뜸된 선견자이리라.”(니파이이서 3:6)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언자  
요셉은 다른 어떤 예언자가 받았던 것보다  
더욱 영감에 찬 교리와 성약 121편과 122편을  
받았다.

첫째 두 분의 요셉은 모두 낮게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 어릴 때 자기 동료로부터 미움을 산 시련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에게 관대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나라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창 41 : 29~31 ;  
교성 87 참조)

두 사람 다 자기 가족과 생이별했습니다.

아마 가장 의미가 깊은 일은 두 사람 다 위대한 용기와  
신앙으로 역경과 고난을 견디어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리버티  
감옥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예언자 요셉과 형제들에게 주어진  
적은 양의 음식은 간수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로써 밤에  
병아리들이 잠자는 더러운 바구니에 담아서 줄 때가 흔히

있었습니다. 당시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으며, 밤이나 낮이나  
어두워 수감자들의 눈을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박해자들이 당장은 승리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온은 죽은  
듯하나 여전히 살아 남을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술,  
382페이지)

신권 축복은 참되게 살아 있음

요셉의 부친이 1834년 아들 요셉에게 신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축복에서 예언자는 “그대는 주 하나님  
이 명하시는 사업을 행하기를 즐겨 할지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에 대한 박해가 점점 커지고 마침내  
투옥되어 살해당하면서도 결코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소망과 만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말일에 선견자의  
사업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루지 못할 것”이며(나이  
3 : 14) 또 그는 “네 백성은 배반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성 122 : 3)  
이 두 약속은 오늘날 참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중에게 충실한 것은 주님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토마스 비 마쉬의 모범이 아니라 로렌조  
스노우의 모범을 따른다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쉬는  
예언자에게서 본 불완전함에 편견을 갖고 한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로렌조 스노우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서 몇 가지  
불완전함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관장이 된  
스노우 장로에게는 요셉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를 여전히 쓰실 수 있는가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스노우 장로는 어쩌면 주님께서  
자신도 쓰실 수 있을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일에 “으뜸된 선견자”로서 요셉 스미스를 쓰신  
일로부터 주어지는 위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부름을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1839년 4월 4일 요셉은 막 해가 지려 할 때 리버티 감옥에서  
아내 엠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외로운 감옥의  
쇠창살 창문을 통하여 내다 보면서,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술, 425페이지)

바로 그것이 요셉이 그날 저녁 지상에서 본 석양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우리에게 전한 영원한 세계의  
광경은 어땠을까요.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언자가 가르친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으뜸된  
선견자를 통하여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

#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게 영적인 양식을 줌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활동 촉진에 관한 공개 토론이 1986년 4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4월 연차 대회와 함께 개최된 지역 대표 세미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 당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곱 사람이 모두 토론에 참여했다: 칼로스 이 애시 장로, 던 엘 라슨 장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그들의 토론 내용이 회원들과 지도자들의 사랑에 찬 활동 촉진 노력에서 그들을 돕도록 인쇄된다.



라슨 장로: 우리는 오늘 "교회와 지도자들이 특별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이 주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 회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축복과 기회를 현재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떤 방법으로도 특별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활동"과 "비활동"으로 정의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그 영역 사이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자 합니다. 그 넘나드는 일은 두 방향 즉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비활동에서 활동의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도 방법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들 돌보고 관심을 보이는 데 꼭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뿐 아니라 보살핌, 사랑, 관심 등과 관련된 지도자적 자질에 관하여 어느 정도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행스 장로님,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지도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이 되는 관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스 장로: 돕기를 원하는 지도자의 정신과 생활에는 최소한 두 가지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진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믿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자질은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믿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에 있는 두 가지 예가 이 근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의 일화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이 기록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고, 키가 작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읍니다. 구세주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삭개오에게 붙여진 별명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셔서 격려의 말씀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로 그의 집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물론경에 있는 또 하나의 예는 주님의 근본 성품을 놀라우리만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삼서 11장에서 28장 사이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함께 모으시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백성을 이해하셨으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아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명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나아와..."(니삼 18: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질 즉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인과 그 개인의 필요 사항을 인식하는 것,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자신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도록 기꺼이 도와 주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또한 이런 영역 내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영적인 힘을 기초로 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백맨 장로: 신권 지도자가 개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질은 최근에 어떤 귀환 선교사에게서 들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교 지역에 도착했을 때 선교부장으로 부터 큰 사랑과 관심 속에서 환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담조로 "선교부장님이 실수하셨어요. 그는 내가 이상적인 선교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배부르도록  
 먹게 되리니,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엘마서 32:42)

그러나 실상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한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읍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기대하는 대로 옹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슨 장로 : 스코트 장로님, 우리는 흔히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코트 장로 :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지도자에 관한 물문경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로서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권능을 가지고 간증했다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판사의 무리 즉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개다이엔톤 도적떼와 친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권능을 갖고 그들에게 간증했으며 그 땅의 재판사가 방금 그의 형제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니파이의 말을 믿고 또 그가 예언자인지 알고 싶어하는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전으로 달려가서 재판사가 죽은 것을 보고 크게 압도당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니파이와 함께 그들이 왕을 죽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니파이의 신앙은



론 피터슨 그림

그의 영성과 합쳐져서 더 높은 영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대판사의 형제가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힐라맨서 8~9 참조) 니파이는 풀려났으며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깊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세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파이어, 내가 행한 일로 하여 내가 복이 있으리이다.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이 백성들에게 성심으로 외쳐 전하였음이라. 너는 또한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너의 생명을 돌보려하지 않고 다만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하였도다.

“네가 이토록 성실히 행하였으매, 보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며, 언행과 신앙과 역사함에 있어 네게 권세를 주어, 정녕 내가 내 뜻에 거스르는 바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이건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힐 10:4~5)

니파이는 발걸음을 멈추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땅의 사방으로 흩어져 간 무리에게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힐 10:12 참조)

내 생각으로는, 니파이의 바로 이런 신앙과 순종심이 그의 놀라운 간증의 권세와 사랑과 합해져서 그가 그렇게 권세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라슨 장로: 고슬린드 장로님, 온전한 활동 회원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고슬린드 장로: 내 생각으로는 봉사란 사랑의 활동인데 봉사하라는 권고를 받는 측이나 그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모사이야서 제2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나민왕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17절) 우리는 봉사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영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번 주 사무실에서 어떤 전화를 받고 경험했던 작은 일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독신 회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약 삼 년 전에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삼 년 전에 이혼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감독님은 단 한번도 정말로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담당 가정 복음 교사도 없었으며 이제는 교회 회원임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며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봉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요?”

그 이후 여러 번 그의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면 누군가가 돌보아 주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설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재능이 가치가 있고 자신의 능력은 주님과 그의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반항적이고 활동이 미미한 회원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부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영의 속삭임을 느껴야 합니다. 봉사하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부탁하고 영감에 의하여 부름을 주는 것이 절대로 긴요합니다.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결정은 영의 허락을 받고 그 부름을 받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그 부름을 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반드시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라슨 장로: 뱁거터 장로님,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어 그들이 교회에서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벵거터 장로 :**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거룩한 원리에 관하여 언급할 때 순종은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순종하거나 봉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사람은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지식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이 그 사람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이는 것을 느끼고(엡 5:26) 주님의 권고를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까지 그 상태로 남아 있게 되리라는 베냐민왕의 말이 뜻하는 의미의 일부분입니다.(모사 3:19 참조)  
구세주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냉담, 이기심, 자만, 반항심과 같은 육으로 난 인간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같은 사랑과 진실한 관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다음 말씀을 지금까지 너무 자주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41~42절)

개인의 자유 의지를 대함에 있어서 특별히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는 구도자가 침례받도록 권하는 것, 주저하고 있거나 함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 교회에서 별로 활동하지 않는 회원에게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직책에 대한 부름을 주는 것, 수련장로나 활동이 저조한 장로가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거나 성전에 가도록 권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도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따르려고 선택한 진로는 그들의 결정이며 그들 자신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내**가 이혼한 후로 감독님은 한번도 방문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정 복음 교사도 없었어요. 나는 무언가 하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든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가치없는 존재인가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가 아니다.



라슨 장로 : 백맨 장로님, 교리와 성약 84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성령의 힘이 강하면 연약한 자를 데리고 다니라. 그리하여 지극히 온유하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여 연약한 자로 강한 자가 되게 할지이다.”(106절)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이 성구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백맨 장로 : 이 성구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신권에 성임된 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며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선약을 맺게 하고 길을 준비하게 하여 너희가 몸소 맺을 수 없는 선약을 맺게 할지니라

“보라, 이것이 옛날 나의 사도들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던 방식이니라

“그러므로 각 사람은 저마다 맡은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르심대로 힘써 일하라. 머리가 발을 향하여 발이 필요없다 말하지 말라. 발없이 어찌 몸이 서 있으리오.

“몸은 각 지체를 필요로 하나니, 모두 서로 도와 건강케 되며 조직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느니라”(교성 84 : 107~110)

비록 이 조언은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소신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원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06절은 “연약한 자를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일으켜 세우고 신앙을 증진하며 도덕심을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워 오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 : 5)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그보다 높은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초가 되어야 하는 주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콧 장로 : 이러한 봉사의 기회에 관하여 이때까지 말씀된 것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별로 가치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의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 스스로 자신이 가치있고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부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과 자존심을 갖게 해줍니다.

라슨 장로 : 얼마 전에 애시 장로님이 받은 편지 내용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분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 장로 : 그 편지는 1986년 1월 어느 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 앞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 내용 중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 단위에서 비활동 회원을 다시 활동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는 그것에 관해 말한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비활동화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은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에 우리 지역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우리와 접촉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아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흥미있는 결론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벤슨 대관장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대관장님에게 간증드립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수년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어떤 사람도 그와 그의 가족을 방문하거나 왜 그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물어볼 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관심을 더 보이기만 하면

교회에 더욱 더 관심을 보일 만큼  
간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라슨 장로: 나는 어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참여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 대한 걱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성전에서  
총관리 역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서 어느 청년을 만난  
일로 마음이 편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미리  
약속도 없이 찾아온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모임과 그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내가 쓴 글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이삼 년 동안 대학에  
다닌 후 성전 결혼을 했습니다. 한  
동안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업도 잘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살던 지방에  
몇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에게도 여파가 닥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취업 약속을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구한 한두 가지  
임시직 직장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신권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으며 현 위치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워드 회원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네,  
저와 가족은 완전한 활동  
회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적이며, 다른 활동 회원들과  
매일 함께 살고 접촉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과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엘마서 32장에 있는 엘마의 위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오늘 토론을  
결론짓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  
나무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가꾸고 신앙을  
가꾸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넓은 의미를 안겨 줄  
것입니다.

“보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매,  
너희가 힘써 이 나무를 가꾸어 뿌리를  
뻗게 하고, 크게 자라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자 하리니, 보라 너희가  
열심히 이 나무를 가꾸면 뿌리를 뻗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으려니와,  
“나무를 소홀히 생각하여 잘 가꾸지  
않아하면, 보라 나무는 뿌리를 뻗지  
못하여 햇빛이 비쳐 마름에 뿌리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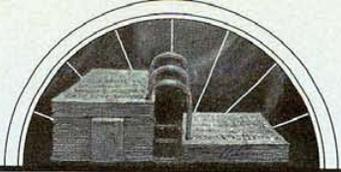
이 나무는 시들어 버릴 것이요, 너희는  
이를 뽑아 던질 것이라.

“이는 씨앗이 나쁘거나 열매가  
탐스럽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지 아니한  
때문이니, 그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결실의  
날을 바라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코 생명 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나,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꿈과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떠리니, 영생으로 뻗어오르는 나무가  
되리라.”(37~41절)

바로 이러한 것이 특별한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복음의  
축복과 유익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다시  
인도하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



물몬경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

# “그 책 속에는 권세가 있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실로 물몬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물몬경이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으나 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더욱 큰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끈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페이지, 물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우리는 다음 해에 물몬경을 공부할 준비를 하면서 교회 회원에게 물몬경에 대한 간증과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요청해 왔다.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다.



남편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그의 동반자로 봉사하도록 성별받았습니다. 나는 전에 선교사로 봉사한 일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는지 몰랐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오고 가는 것,

음식 준비, 모임 참석, 훈련 실시 및 말씀 준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유례없이 들뜬 어떤 날이 생각납니다. 선교본부가 특별히 불렀습니다. 나는 식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지구 책임자들에게 영적 말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업을 행하는 그 장로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거의 하나님 아버지께 들릴 만한 큰 목소리로 기도드려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맡게 된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그때 “이 불쌍한 아가야.”라는 부모님의 동정어린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시간은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다.”라는 엄하고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순간 나는 주님께 의지하면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하여 나는 최우선 순위로써 경전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몬경을 읽으면서 큰 위안을 찾았습니다. 엘마서 37장 35~37절을 읽으면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하나님의 계명지키기를 배우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합당하도록 하며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다.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

나는 이 성구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매일 그와 대화하며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의 사업을 성취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존 더블류 웰치 형제는 감독이며 브리감 영 대학 법학 교수이고 물몬 고대 연구 재단 책임자이다.



물몬경은 내가 열여섯 살 때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세미나리 교사는 헌신적이고 열성적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인생과 복음은 깊은 의미가 있었으며 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나는 그가 물몬경을 가르칠 때의 그 긴박하고 강렬했던 태도가 특별히 기억납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걸지 않고서는 물몬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나도 물몬경에 대한 이런 태도를 결코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물몬경에 대한 이런 태도를 결코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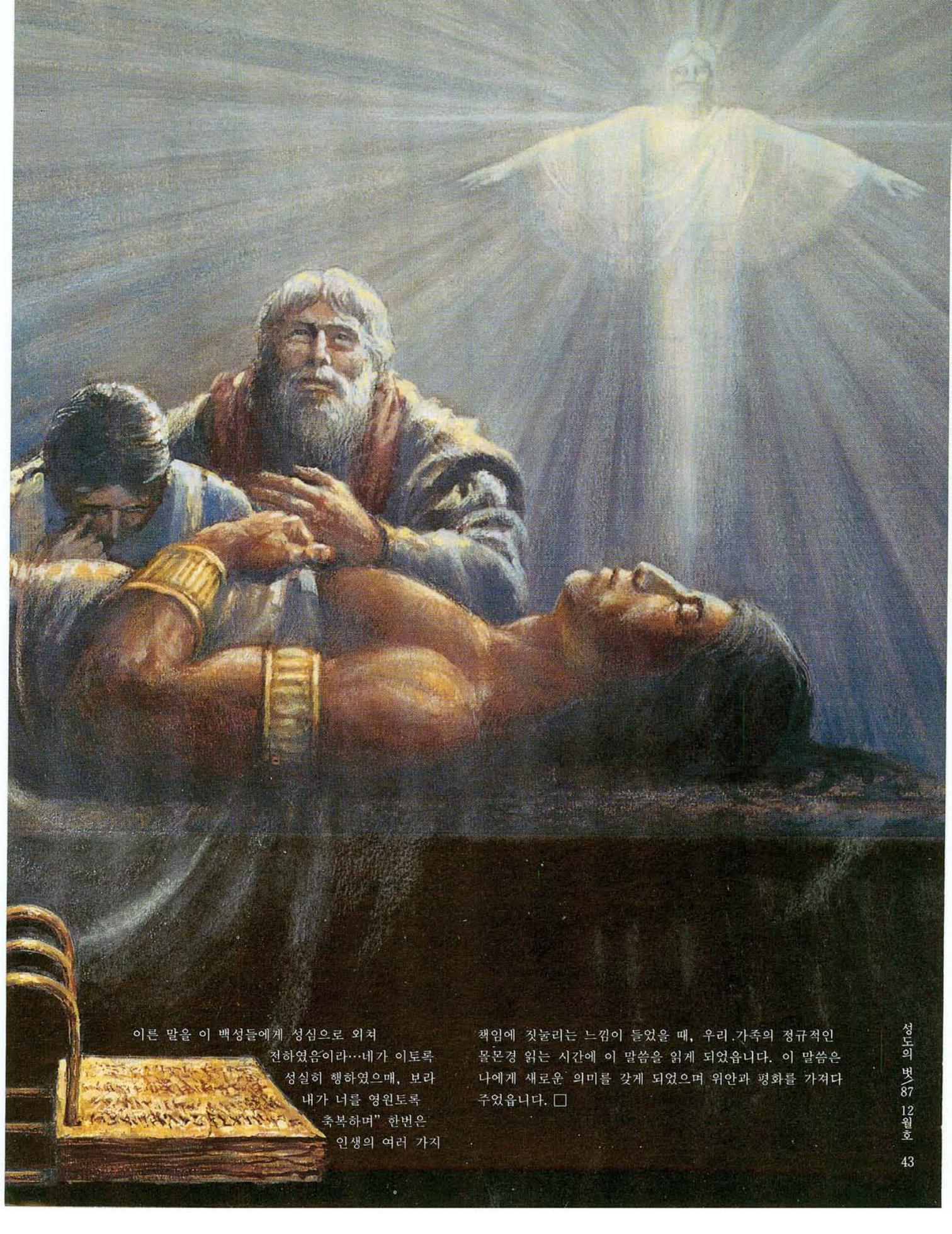
나는 위안과 화평이 필요할 때에는 엘마서 36장에 있는 엘마이세의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엘마는 그의 인생이 반항과



공포, 고통과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복음의 놀라운 빛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훌륭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개종의 전환점 즉 엘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부친의 예언을 기억해 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외친 그 순간으로부터 특별한 위안을 받습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19~20)

나에게 특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로 지쳐 있을 때 큰 위안을 주는 또 한 구절은 힐라맨서 10장 4절과 5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음성이 니파이에게 임하여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네가 행한 일로 하여 네가 복이 있으리이다. 너는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이 백성들에게 성심으로 외쳐  
전하였음이라...네가 이토록  
성실히 행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며” 한번은  
인생의 여러 가지

책임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의 정기적인  
물문경 읽는 시간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

# “너희는 물몬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안나 스테이러

**유** 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 있을 때 우리 지부장이 한 말씀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만일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의 침례자도 내지 못하고 귀환하게 된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개심하여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물몬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온다면,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열다섯 살에 교회에 들어왔다. 침례받기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라는 영적 확인을 받았다. 나는 물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서야 비로소 물몬경의 개심시키는 능력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선교부에서 봉사한 지 약 칠 개월 되었을 때, 동반자와 나는 페르난도 가레이를 만났다. 그는 로드리게즈 지부장 부부의 이웃 사람이었다. 페르난도는 어떤 선교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신학적인 문제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로드리게즈 지부장 덕분에 페르난도는 선교사 토론을 배우기로 했다. 페르난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의 친척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로드리게즈 지부장 집에서 그를 가르쳤다.

첫째 토론을 할 때 영이 강하게 임했다. 페르난도의 뺨에 눈물이 흘러 내렸으며 그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페르난도를 가르쳤다. 로드리게즈 형제는 대부분의 파라과이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파라니어의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자주 우리의 토론에 함께 참여했다.

페르난도는 지적인 사람으로 의문이 많았다. 그는 우리가 권하는 것을 모두 다 읽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이상적인 구도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론이 점점 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었다. 첫 토론할 때처럼 강한 영이 임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페르난도가 우리의 가르침에 공격을 시작할 때가 더 많았다. 그는 친척과 함께 다니던 교회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고 나면 눈물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을 때가 흔히 있었다.

여러 주 동안 가르친 다음 우리는 복습하고 필름스트립을 보여 주고 질문에 답하는 등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인가 빠진 것이 있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우리를 부추겨 주기 시작했다. “물몬경을 활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간증하라. 너희는 물몬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때까지 물몬경을 충분히 활용했다고 생각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다음날 페르난도를 만났을 때 물몬경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진실성을 거듭하여 간증했다. 그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주의깊게 읽어 보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만났을 때 그는 기쁨에 차서 얼굴에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는지 물어 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소리없이 울면서 물몬경을 움켜 쥐었다. 그가 유일하게 질문한 것은 “내가 언제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 뿐이었다. 그는 일주일 후 로드리게즈 형제에게 침례받았다.

이 체험은 페르난도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생활도 변화시켰다. 나는 이미 물몬경의 권세를 느꼈었다. 나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지부장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물몬경을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한 것을 상기했다. 이제 나는 물몬경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다. □



# 와

사키 추장은  
1805년 경  
아이다호주

쇼손족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모친은 쇼손 인디안,  
부친은 플랫헤드  
인디안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한 쇼손족  
지도자가 그를 키워  
주었으며 그는 자기  
아들보다 와사키를 선택하여  
자기 뒤를 이어 추장이 되게  
했다.

브리감 영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첫 개척자를 인도해  
올 당시 와사키가 쇼손족  
추장이었다. 그는  
미합중국과의 조약 체결로  
개척자들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와사키의 자랑스러운 소유물  
중에는 9,000명이 서명한  
감사장이 있는 데, 그들은  
그의 보호를 받아  
오레곤까지 개척로를 따라  
여행했다.

브리감 영은 와사키에게  
여러 명의 사자를 보내 교회  
회원들이 쇼손족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기꺼이 도와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짐했다. 그  
사자 중 한 사람인 제임즈  
에스 브라운이 와사키  
추장과의 회담을  
기록하였다. 그는 그 일행이  
추장의 숙소로 안내받아 그  
종족 지도자 무리들과 함께  
앉도록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브라운 형제는  
브리감 영이 보낸 씨앗과  
연장, 파종법과 경작법을  
시범으로 보여 주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주겠다고  
제의하는 편지를 읽어  
주었다. 그는 또 그  
무리에게 물문경을 한 권  
증정했다. 그 지도자들은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돌려



한

앤 아비타는 그녀의 증조부  
와사키 추장이 그랬던 것과  
같이 와이오밍의 윈드 리버  
산맥에 있는 고향을  
사랑한다.

# 윈드 리버의 유산

제넷 토마스

인디안 소녀가 자기 선조가 지니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지도자적인 자질의 일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빨**간 소형 트럭 한 대가 윈드 리버 인디안 보호 구역에 있는 와이오밍 인디안 고등 학교 교정 안으로 꺾어 들어오려고 속력을 낮추었다. 그 트럭은 주차장을 횡단해 가면서 흙 자국을 남겼다. 그 차는 한 어린 소녀가 운전하고 있었다.

저 소녀가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내가 아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앤 아비타라는 것 뿐이었다.

앤의 오빠 제임즈가 나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고등 학교 졸업반에서 해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학생회 회장으로 뽑혔으며, 교사들이 금년도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했고, 동부 쇼손족 파우와우(종족 평의회) 여왕 및 에세테 파우와우 여왕으로 선출되고, 미연방 의회 앞에서 증언하도록 초청받고, 세계 미스 인디안 대회에서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우정상 수상자로 뽑혔다. 그 이외에도 학교의 농구 및 배구팀에서 활동하고 말일성도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일도 했다.

그 작은 트럭이 내 옆에 서더니, 그 소녀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검은 머리의 무척 예쁜 아가씨였다. 그녀가 다음 순간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로 앤이었다.

앤 아비타와 그의 오빠 조지는 가족 가운데 가장 어린 식구로 와이오밍 중부의 윈드 리버 인디안 보호 구역의 포트 와사키시에서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의 오빠 제임즈는 캘리포니아 벤츄라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고 언니 코네사는 아이다호주 렉스 대학에 다니고 있다. 다른 오빠와 언니들은 결혼하여 근처에 살고 있다.

앤과 그 형제들은 쇼손족의 위대한 주장인 와사키 추장의 후손이다. 와사키 추장은 브리감 영이 알았던 사람이며 교회에 가입하고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소개했던 사람이다. 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종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부친에 관해서 그리고 부친이 어떻게 우리 종족을 인도했는지 또 많은 사람이 침례받았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앤은 함께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앤은 그 작은 빨간 트럭에 뛰어올라 계곡을 가로질러 나 있는 길고도 곧은 길을 운전해 갔다. 윈드 리버 보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곳은 정상에 눈으로 덮인 자주빛 산맥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서 건조발과 말목장이 있다.

빨간 소형 트럭은 속력을 낮추고 작은 공동 묘지의 입구로 방향을 돌렸다. 앤은 화장암에 와사키 추장의 이름이 뚜렷이 새겨진 큰 비석을 가리켰다. 그의 이름 옆에 “쇼손족 추장”이라는 짧은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가 바로 앤의 고조 할아버지였다.

그런 유명한 선조가 있지만 앤과 조지는 교회 어느 곳의 심대 청소년과도 비슷하다.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 교회 가르침에 가까이 따르며 생활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앤은 제임즈 오빠와 어머니 제도라로부터 교육의 가치를 배웠다. 앤은 현재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유타주 프로보의

가며 그 책을 보고는 그 책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선언했다. 와사키는 그 원로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뻗쳐 그 책을 집어서 페이지를 넘겨 보고는 그 대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같이 어리석소.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것이요, 귀도 없으니 듣지도 못하는구려. 이분들은 우리 친구요. 물문의 위대한 지도자[브리감 영]는 구름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여 왔오. 그분은 물문 지도자가 우리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 주도록 이 훌륭한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도록 지시하신 것이오.”

추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구름 위에 살아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을 사랑하셨던 때요. 그분의 얼굴은 빛났었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선조들과 말씀하셨고 그분의 얼굴은



브리감 영 대학에서 지도자 장학금을 받았다. 앤은 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예정이다.

앤과 조지는 여러 면에서 대부분의 십대와 같지만, 그들이 민속 의상으로 갈아 입고 지역 종족 평의회인 파우와우에서 열리는 인디언 춤 경연 대회에 참가할 때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앤과 조지 둘 다 춤을 잘 추며 종종 시합에서 이긴다. 그들은 조상이 하던 그대로 북소리의 장단에 맞추어 움직인다. 그들은 옛날 풍습을 존중하고 그 땅의 아름다움과 자기 백성의 감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향유한다.

앤은 자기 고향 계곡을 사랑한다.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곡은 와사키 추장이 쇼손족에게 준 유산이다. 그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위 : 앤과 모친 제도라.  
아래 : 에테테 파우와우 여왕이 된 앤이 전통 무용 경연에서 그룹을 지도하고 있다.  
가운데 : 부락에서 가족 및 부족과 함께 있는 와사키 추장. 오른쪽 : 앤의 오빠 조지.

그들 위를 비치셨오. 그리고...그들은 현명했으며 책을 썼오.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셨오. 그러나 얼마 후 우리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하지 않았고 서로 싸우고 도적질하고 다투었오. 그의 자녀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노하셨던 것이오.”

그런 후 제임스 브라운은 와사키 추장이 그의 백성에게 백인과 인디언의 생활 방식 사이의 차이를 대조해 가며 그들이 개척자로부터 배움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와사키 추장은 자기 백성에게 교육을 받고 스스로 향상하도록 권고했다. 그는 동부 쇼손족의 영원한 고향으로써 와이오밍주의 아름다운 윈드리버 산맥을 선택하였다. □

자기 종족에게 배정되는 보호 구역 위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받은 극소수 인디언 추장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손녀가 그 계곡에 대하여 자신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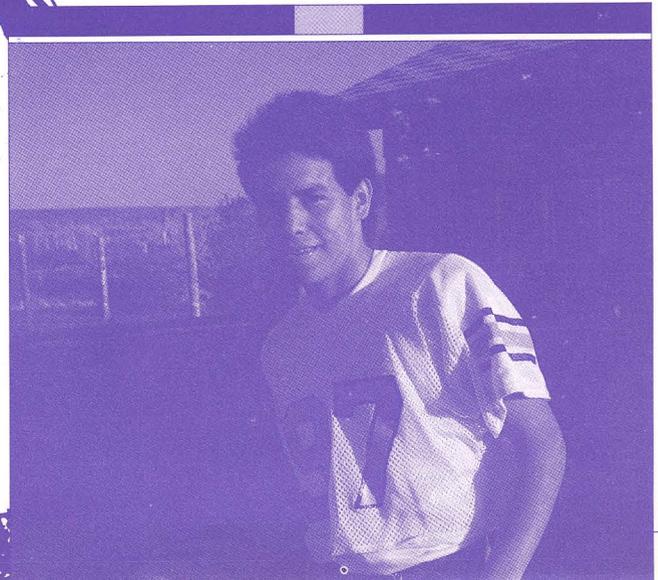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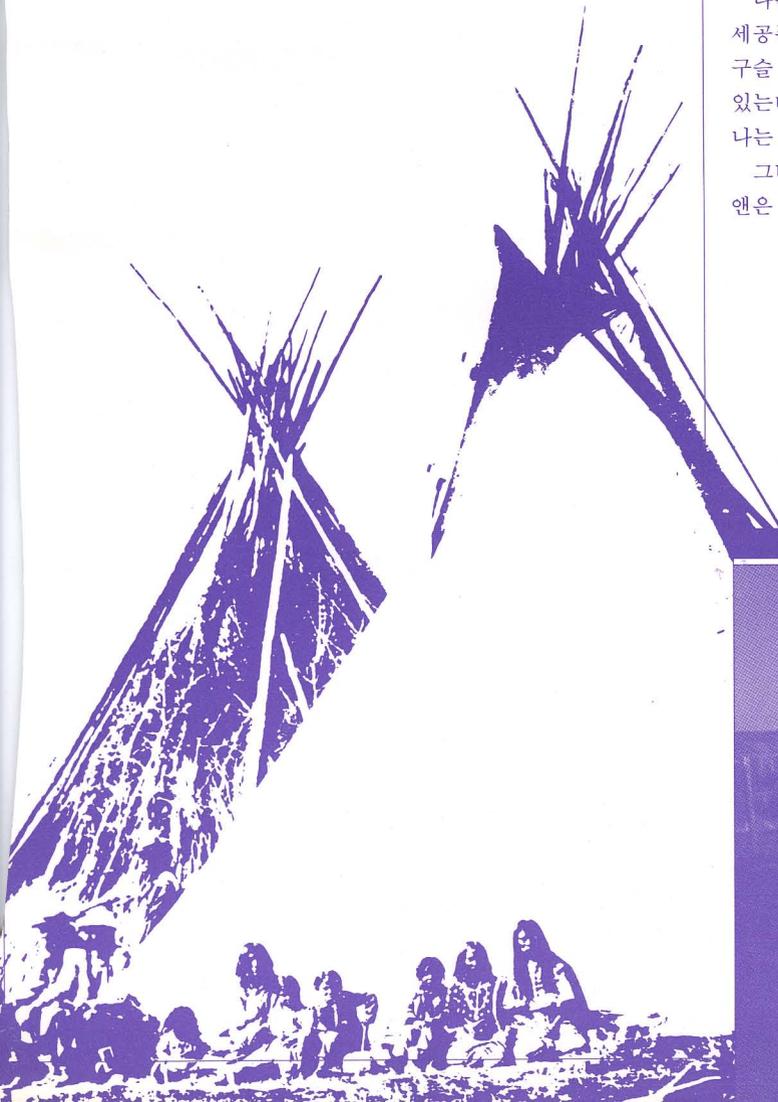
앤은 인디언 알콜 및 약물 예방법의 장점에 관한 미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한 워싱턴 방문단에 선발되었다. 그녀와 윈드 리버 보호 구역에서 온 또 한 소년은 상하 양원 의원에게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앤은 그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와싱턴에 갔을 때 그곳에 앉아 모두 나와 동갑인 다른 대표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충분히 큰소리로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의 말은 알아 듣기 어려웠읍니다. 나는 그곳에 있을 때 확실히 분명하고 들릴 수 있게 큰소리로 말했읍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읍니다. 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려나는 말을 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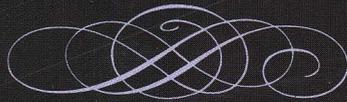
앤은 일부 동료 학생들이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점에 직면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일성도가 아니라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압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가끔 그들은 술을 마시는 파티가 정말 재미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것이 유치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부 회원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교회 활동, 학생 회의 및 기타 학생 단체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참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따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앤은 친구들에게 좀더 교회에 관하여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앤은 이렇게 말한다. “친구들은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을 감탄하며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다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남다르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친구들에게 물몬경에 관해서 가르치려 하면,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침례받고 싶으냐고 물어 보면 지혜의 말씀만 없으면 침례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포트 와사키를 떠나면서 쇼손족의 유명한 아름다운 구슬 세공품을 골라 보려고 보호 구역의 상점에 들렀다. 오색 영롱한 구슬 목걸이 중 어떤 것을 살까 하고 마음을 정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자 판매원이 다가와서 도와 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앤 아비타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환한 얼굴을 하며 “예, 잘 압니다. 앤을 알고 말고요. 앤은 아주 훌륭한 소녀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